

3일 Market Index			
↑ 코스피	5377.30	↑ 코스닥	1063.75
	(+143.25)		(+7.41)
↓ 금리 (연이자율)	3.448	↓ 환율 (원/달러)	1511.40
	(-0.029)		(-8.30)

20억 弗 우주 거는
삼성·SK
K-메모리 먹거리 다변화
04



트럼프, 이란에 “공격보류 기한 48시간 남아”

‘지옥문 압박’ 전쟁 긴장감 최고조

보류기한 내일 오후 1시 추정
美 “협상 응하든지 호르무즈 개방”
이란 “고강도 보복… 굴복 없을 것”

미군의 진격이나, 퇴각이나, 아니면 페르시아만 인근 연장 대기나. 백악관이 추가로 설정한 ‘공격 보류’ 기한도 끝나 간다. 시한은 미 동부시간 4월6일 자정(한국7일 오후 1시)인 것으로 추정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이제 48시간 남았다”며 휴전합의 등의 무산 시 대규모 군사작전 돌입을 예고했다. 이에 맞서 이란도 “고강도의 보복”을 각오 하라며 굴복은 없을 거란 성명을 대내외에 알렸다. **<관련기사 2면>**

트럼프는 사회관계망서비스 트루스 소셜에 적은 글에서 “지옥의 문이 열릴 때까지 48시간 남았다. 이란은 내가 열흘의 기한을 주면서 협상에 응하든지, 아니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라고 한 말을 상기하라”고 했다. 이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미국은 이 같은 유예 기한에도 이란에 대한 국지적 공격은 멈추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 국영 IRNA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군은 이스라엘방위군과 함께 4일 이란 영토내 석유화학단지 및 원자력발전소 등에 대한 공습을 퍼부었다.

매체는 이란 남서부의 후제스탄주 발



지난 3일(현지 시간) 이란 테헤란 남서쪽 카라지의 신설 B1 교량이 전날 미군의 공습으로 파괴돼 있다. /AP·뉴스시

리올라 하이티 부지사를 인용해 “미국과 시온주의자(이스라엘)의 전투기가 파지르 제1, 2 석유화학 단지를 비롯해 라잘, 아미르카비르, 아부알리 석유화학 공장을 타격했다”고 전했다. 또 반다리암 석유화학 공장도 공습을 받아 일부가 파손됐다고 밝혔다.

같은 날 오전에는 이란 남부 부셰르 원전 단지도 미국·이스라엘의 공습을 받아 방호 직원 1명이 사망했다고도 전했다.

매체는 2월 말 전쟁 발발 후 부셰르 원전이 총 4차례의 공격을 받았다고 했

다. 이어 원전 내 상당량의 방사성 물질이 존재하는만큼 원전이 심각한 피해를 입으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부셰르 원전 피격 사실을 확인했다면서도 방사능 수치 증가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아바스이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 X를 통해 “이스라엘과 미국은 부셰르 원전을 4번이나 공격했다. **<2면에 계속>**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metro

길어지는 노후... ‘연금탑’ 쌓아 소득 확보

연금과 생존전략

1 노후의 버팀목 ‘연금’

우리 사회는 지난 2024년 12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지난 2017년 8월 ‘고령사회’에 진입한 지 약 7년 만이다. 앞선 해외 사례 가운데 고령화 속도가 가장 가파른 국가인 일본은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행되는 데 10년이 걸렸다. 한국은 주요국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이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하고, 저출생도 지속돼서다.

韓 2024년 ‘초고령사회’ 진입 은퇴~기대수명 소득공백 34년 올해 기초연금 수급자 779만명 35만원씩 지급... 예산 23.3조

◆ ‘장수 리스크’ 본격화

국제연합(UN)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0% 이상은 초고령화 사회로 구분한다. 고령 인구 비율이 크면 사회의 생산성은 감소하며 부양비용은 늘어난다. 국가데이터처는 우리 사회의 고령자 비중이 지속 증가해 2036년 30%, 2050년 40%를 넘길 것으로 전망한다. 기대 가능한 복지 수준도 갈수록 축소될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가 늘어가는 반면, 은퇴는 앞당겨지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4년 직장인들이 평균적으로 퇴직한 나이가 가장 오래 일한 직장을 떠난 나이는 49.4세다. 2010년의 53세와 비교해 3년 넘게 앞당겨졌다. 지난해 발표된 기대수명인 83.4세와의 격차는 34년에 달한다. 정부가 중장년층의 소득 공백 극복을 위해 정년 연장을 논의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노동자가 법적 정년(60세)을 채우지

못한다. 길어지는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오히려 짧아졌다.

장수 리스크는 이미 본격화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소득 하위 70% 고령자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령화로 기초연금 수급자가 빠르게 늘며 관련 예산도 늘고 있지만,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고령자의 빈곤은 지속되고 있어서다. 올해 기준 779만명의 기초연금 수급자가 34만9700원을 지급받는 가운데 올해 기초연금 관련 예산은 총 23조3000억원에 달한다.

정부가 제시하는 방안은 소득이 낮은 수급 많은 연금액을 지급하고, 소득이 상대적으로 많은 고령자에게는 더 적은 연금액을 지급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개편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성은 강화하되 궁극적으로는 총 지급액을 낮추는 방안이다. 이처럼 우리 사회의 고령화가 심화할수록 각종 사회보장 제도는 취약계층을 우선하는 형태로 개편될 가능성이 크다. 은퇴 이전의 근로 소득을 노후로 재분배하는 ‘연금’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는 이유다.

◆ 노후의 버팀목 ‘연금’

국가데이터처가 지난해 실시한 사회조사에서 19세 이상 국민 중 주된 노후 대비 수단으로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금 제도를 꼽은 응답자는 75.7%다. 특히 국민연금이 주된 노후 준비수단이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58.5%에 달했다. 예·적금을 비롯한 금융자산이나 주식·채권 투자, 부동산을 주된 노후 준비 수단으로 제시한 비중은 23.3%에 불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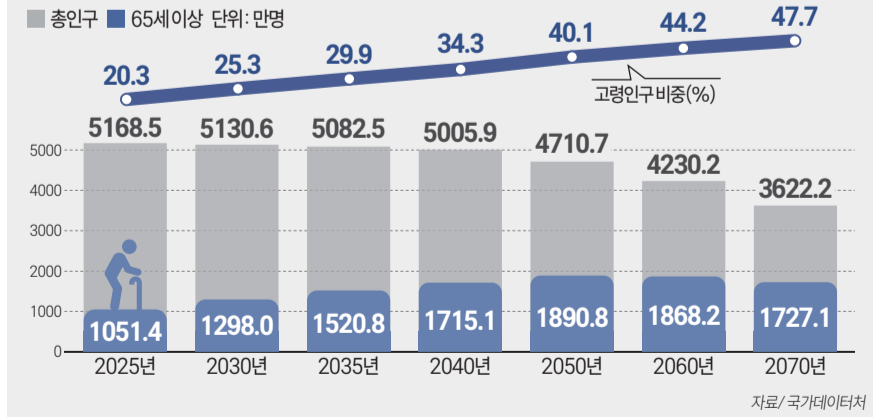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은 노후 준비의 가장 중요한 축이지만,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를 대비하기 어렵다. 지난해 국민연금 수급자의 평균 지급액은 월 67만원에 불과하다. **<4면에 계속>**

/안승진 기자 asj1231@



metro

고령인구비중과 향후 전망



m-커버스토리

3500억 弗 투자... 美 관세 파고 넘는다

대미 1호 프로젝트 초읽기

美, 韓 ‘우호적 투자 파트너’ 공인 투자 매개로 관세협상 타결 시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초대형 대미 투자 프로젝트가 조만간 베일을 벗을 전망이다.

미 정부 고위 당국자가 한국의 투자 계획 발표 시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함에 따라, 지난해 양국 관세협상의 이후 수면 아래 진행되던 3500억 달러(약 529조 원) 대미투자 협의가 큰 틀에서 합의에 이르렀다는 평가가 나온다. **<관련기사 3면>**

현지시간 지난 2일, 미 행정부 고

위 당국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관세 행정명령 시행을 앞두고 마련된 전화 브리핑에서 한국의 투자 이행 상황을 전격 공개했다.

이 당국자는 일본의 투자 사례를 설명하던 중 “한국도 있다. 그 프로젝트들은 향후 몇 주에 걸쳐 발표될 것 (You’ve got Korea. Those are going to be announced over the coming weeks)”이라고 밝혔다. 발표 시점이 특정되지 않았으나 1호 프로젝트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갔음을 예상케 한다.

이번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이 높은 파생 제품에 대해 25%의 일괄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에 서명한 날 나

왔다. 미국이 모든 나라에 관세를 매기겠다고 엄포를 놓은 시점에 한국을 ‘우호적 투자 파트너’로 공인함으로써, 대규모 투자를 매개로 한 관세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음을 시사하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관세 협상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부는 구체적인 투자 품목과 시기, 발표 주체 등에 대해 ‘NC ND(Neither Confirm Nor Deny,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음)’ 입장을 이어가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측과 긴밀히 협의 중인 사안으로 현 단계에서 확인해 줄 수 있는 내용은 없다”고 했다. **<3면에 계속>**

/세종=한용수 기자 hys@



metro

메트로 한줄뉴스



▲한병도 “李정부 민생지원금 선거용 아냐... 지금은 전쟁 추경” /사진 뉴시스
▲국힘 “중동사태로 의료 소모품도 대란... 긴급 생산지원책·행정조직 검토해야”

▲與 “지선 출마자들 李대통령 취임 전 사진·영상 홍보 활용 금지”... 강득구 “잘못된 지침에 반대”
▲與 “식목일, 탄소중립 실천 출발점... 책임있는 정책으로 기후위기 대응”

▲국힘 서울·부산 경선 레이스 고조... 집중 견제 받는 오세훈
▲지난달 ‘산불 진화’ 투입됐던 군 헬기, 실수로 D MZ 내부 진입

환율·주식 등 금융위기 수준 쇼크... 가계·기업 비용부담 확산

중동 리스크, 한국 흔들다

④ 경제 복합위기 <끝>

달러 강세... 환율 1500원대 웃돌아 코스피,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낙폭 채권, 바이백 등 정책대응 '버티기'

중동 전쟁이 격화되며 우리나라의 환율·금리·증시 등 금융시장을 한꺼번에 흔들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지난 3일 기준 1505.2원, 코스피는 2일 기준 5234.05를 기록했다. 같은 날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3.448%, AA- 3년 물 회사채 금리는 4.093%로 집계됐다. 숫자만 놓고 봐도 환율·주식·채권이 동시에 긴장 상태에 들어간 셈이다.

◆ 금융시장 직격탄

주식과 환율이 가장 먼저 흔들렸다. 3월 말 코스피는 월간 기준 약 19% 밀려 2008년 이후 최악의 낙폭을 기록했



지난 3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하고 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5234.05)보다 143.25포인트(2.74%) 오른 5377.30에 마감했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519.7원)보다 14.5원 내린 1505.2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뉴시스

고, 2월 말 고점 대비로는 19.9% 하락했다. 외국인도 3월 한 달 동안 코스피 주식을 35조9000억원어치 순매도했다. 원화 가치는 한때 달러당 1500원을 웃돌며 2009년 금융위기 직후와 외환위기 이후에나 보였던 수준까지 약세를 보였다.

김영익 내일희망경제연구원장 겸 한양대 미래인재교육원 겸임교수는 “금융시장 측면에서는 주가가 거품 영역에 있

었던 것 같다”며 “이제 조정 국면에 들어섰고, 최근 소비 심리와 기업 심리가 많이 위축되고 있어 실제 소비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미 높아졌던 기대가 중동 변수와 만나며 시장 조정 폭을 키웠다는 의미다.

채권시장도 안전지대는 아니었다. 지난달 23일 한국의 기준물 국채금리는 2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뛰었다. 다만 주식·환율과 달리 채권에는 정책

대응이 곧바로 붙었다. 정부는 최근 변동성이 커진 국채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2조5000억원씩 두 차례, 총 5조원 규모의 긴급바이백을 실시했다. 여기에 4월 1일부터 한국 국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단계 편입이 시작되면서 외국인 자금 유입도 방어막 역할을 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주 들어 사흘간 4조 4000억원이 넘는 외국인 자금이 국채시장으로 유입됐다고 밝혔다. 환율과 주식이 직접 충격을 맞는 동안 채권은 정책 대응과 지수 편입 효과로 일부 완충 장치를 확보한 셈이다.

◆ 미 금리 정책 등 대외 불확실성 여전 대외 여건도 한국 시장에 우호적이지 않다.

미국의 3월 비농업 일자리는 17만 8000명 늘어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고, 실업률도 4.3%로 낮아졌다. 시장은 이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조기 인하 기대를 더 약하게 만드는 신호로 보고 있다.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불안까지 겹치면서 달러 강세와 글

로벌 금리 상방 압력이 함께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한국 입장에서 원화 약세와 조달금리 부담이 동시에 길어질 수 있다.

기업이 체감하는 비용 부담도 이미 커지고 있다. 3월 한국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PMI)는 52.6으로 4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투입가격 상승률도 유가 급등과 원화 약세 영향으로 2022년 6월 이후 가장 가팔랐다. 기업은 수입 원가와 환헤지 비용, 회사채 조달금리 상승을 함께 감내해야 하고, 가계는 대출금리 부담이 길어지는 가운데 생활비 압박까지 버텨야 하는 구조다.

결국 중동 리스크는 유가를 넘어 한국 금융시장의 가격변수들을 동시에 흔들고 있다. 환율과 주식이 먼저 충격을 받고, 채권도 금리 급등 압력 속에 정책 대응으로 버티는 사이, 가계와 기업은 더 높은 금융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다.

/김주형 기자

g471@metroseoul.co.kr



metro

한전·전력그룹사, '경제 전시상황' 대응

전력망 확충·자산지소 활성화 등 논의 김동철 사장 “에너지 절감 솔루션부”

한국전력(이하 한전)과 전력그룹사가 최근 중동 정세 악화로 인한 국가 에너지 안보 위기 상황을 '경제 전시상황'으로 인식하고 고강도 에너지 절감 대책에 나선다.

한전과 10개 전력그룹사는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전 아트센터에서 '전력그룹사 긴급 사장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회의에는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5개 발전공기업과 한전 KPS, 한전KDN 등 전력계통 핵심 관계사들이 모두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환율 및 국제 연료가격 급등이 재무 구조에 미칠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전력공급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특히 ▲중동 정세 관련 재무위기 대응 현황 ▲한전의 고강도 에너지 절감 종합 대책 ▲에너지 안보 위기 대응 전략 ▲미래 전력망 구축 과제 등 경영현안 전반에 걸친 폭넓은 협의가 이뤄졌다. 아울러 국가 첨단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전력망 적기 확충'과 '자산지소(지역 생산·지역 소비) 활성화' 등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대비한 로드맵도 심도 있게 다뤘다.

한전과 전력그룹사는 이번 회의를 기

점으로 2025년 전력그룹사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5%인 약 513GWh를 감축하기로 했다. 또 '중동 자원위기 대응 및 국가적 에너지 절감 선도 공동선언'을 통해 전력공급 안정과 에너지 절감을 위한 국민 캠페인과 국가에너지 안보 강화에 적극 앞장서기로 결의했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이날 회의에서 “한전과 전력그룹사가 정부의 고강도 에너지 절감 대책을 솔선수범해 이행하고, 전력그룹사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가적 에너지 위기를 지속 가능한 에너지 대전환의 기회로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metro

후티·헤즈볼라 가세... 이스라엘은 침묵

>> 1면 '지옥문 압박...'서 계속

방사능 낙진은 테헤란이 아니라 걸프국들의 수도에 거주하는 이들의 생명을 앗아갈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이 공격받았을 때 서방의 분노를 기억하는가”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란은 즉각 반격에 나섰다. 특히 예멘 후티와 레바논 헤즈볼라도 가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멘 알마시라TV 보도에 따르면 후티군은 이란혁명수비대, 헤즈볼라와 합동 작전으로 이스라엘 벵구리온 공항 및 주요 군사요충지에 탄도미사일과 무인기 공격을 가했다.

다만 이스라엘은 이에 대한 사실확인 여부 또는 논평을 내놓지 않고 있다. 후티군은 지난달 28일부터 이스라엘 쪽을 향해 미사일과 무인기 공격을 개시했다. 후티군은 이란, 이라크, 레바논, 팔레스타인 등 동맹국군대를 지원한다는 의도로 공습과 포격을 시작한 것.

한편 트럼프는 자국 전투기의 이란 영토내 추락으로 탈출·실종됐던 조종사를 구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군은 내 지시에 따라 그를 데려오기 위해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무기들로 무장한 수십 대의 항공기를 보냈다”며 “그 병사는 부상을 입었지만 괜찮을 것”이라고 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의정부viewtiful

시민이 직접 뽑은 의정부 8경(景)

망월사

▶ 기암절벽 속 숨은 고찰, 망월사

미술도서관

▶ 국내 최초 미술 전문 공공도서관, 미술도서관

수락산 도정봉

▶ 화강암 능선이 펼쳐진 경관, 수락산 도정봉

음악도서관

▶ 책과 음악이 함께하는 공간, 음악도서관

의정부경전철

▶ 의정부 구석구석을 잇다, 의정부 경전철

의정부예술의 전당

▶ 감동과 열정! 의정부 문화예술의 중심, 의정부 예술의 전당

의정부제일시장

▶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우수 재래시장, 의정부 제일시장

회룡사

▶ 태초 이성계와 무학대사의 전설을 만나다, 회룡사

내 삶을 바꾸는 도시, 의정부

‘조선·에너지’에 집중... 한국기업 참여로 실익 키운다

3500억 3대미투자 전략

정부가 추진하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프로젝트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을 저지하기 위한 ‘방어용카드’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한 공세적 전략으로 풀이된다.

◆美원하고韓잘하는 조선·에너지

대미 투자는 크게 조선업(1500억 달러)과 기타 전략 산업(2000억 달러)이라는 두 축으로 나뉜다.

조선 1500억·전략산업 2000억 MRO·조선소 현대화, 美재건 겨냥 LNG·원전·송전망 협력 유력

특히 조선 분야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조선업 재건(MASGA)’ 기조에 부합하는 핵심 카드다. 국회입법조사처 분석에 따르면, 우리 기업은 미국 내 노후 조선소의 현대화와 군수·상업용 선박의 유지·보수·정비(MRO) 산업에 투입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투자는 보증과 선박 금융을 통해 위험을 분산하되, 발생하는 수익 전액을 한국 기업이 수취하는 구조적 실익이 담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내 데이터센터 확대와 AI 산업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윌라드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한미 양국 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미 제조업 파트너십 MOU 체결식’에서 대화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성장으로 인한 전력 수요 급증도 핵심 변수다. 이에 따라 LNG 발전, 원전, 송전망 등 에너지 인프라가 주요 협력 분야로 꼽힌다. 실제로 양국은 루이지애나 LNG 수출 터미널, 알래스카 LNG 개발 등 에너지 플랜트와 더불어 노후 원전 설비 교체, 송전망 확충 등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을 위한 전력망 현대화 사업 역시 유력한 후보군이다.

앞서 일본이 오하이오주 가스 화력발전소와 텍사스주 석유·가스 수출 시설 등에 투자를 결정하며 관세 협상력을 높인 사례도 참고 모델이다. 한국은 조선

MRO 사업과 에너지 인프라 투자를 결합한 ‘패키지 전략’을 통해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지난 3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일본의 대미 투자 계획 중 97.5%(1,063억 달러)가 발전 시설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며 “이는 미국이 전력 부족을 국가 안보 위기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한국 역시 에너지 안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보편 관세 예외’ 지위를 확보하는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韓기업 참여형’로 공동화하려 차단 가장 큰 숙제는 전문학적 자본 유출에

따른 국내 투자 위축, 즉 ‘산업 공동화’ 방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단순 현금 지원이 아닌 ‘지분 참여형’ 방식을 추진 중이다. 한미전략투자공사의 자본금 2조 원과 기금을 활용해 국내 기업들이 미국 내 대형 프로젝트에 공동 투자자로 참여하는 구조다.

우리 기업이 직접 설계·시공·운영에 참여해 수익을 국내로 환수하고, 운영 과정에서 우리 기업이 변압기나 강관, 시스템 등 국산 기자재를 지속적으로 수출하는 동반 진출 모델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현금 대신 지분형 투자 추진 직접 참여로 수익 환수 노력 기자재 수출 연계, 공동화 차단

건설업계에 제안된 것으로 알려진 캘리포니아 담수화 플랜트 사업 역시 이러한 맥락으로 파악된다. 이 사업은 국내 건설·플랜트 기업의 대미 투자 참여 가능성이 거론되는 대표 사례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 기업들이 직접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구조를 확정 짓는 것이 협상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KIEP도 “직접 프로젝트를 수행하지 않더라도 지분 참여 등을 통해 철강 등 제232조 관세 영향을 받는 소재 산업의 피해

를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 한·일 연대 통한 ‘규모의 경제’ 모색도

한미 양국은 이번 투자를 통해 관세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공급망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은 한국의 자본과 기술로 인프라를 개선하고, 한국은 관세 부담 완화라는 실익을 얻는 구조다. 특히 미국 현지 생산 기반 확대를 통해 향후 통상 분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KIEP는 나아가 한·일 양국이 전략적 대미 투자기금을 연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보고서는 “일본 사례를 참고해 프로젝트를 선별하고, 한미일 공동 프로젝트를 고려하며, 정상회담에서 미일 간 협력이 점차 진전되는 양상을 참고해 대미 협력 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한일 협력이 가능한 분야에서 상호 전략적 대미투자를 연계해 공급망 결핍 부분을 보완하거나 규모의 경제 기회를 모색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다만 3500억 달러에 달하는 재정 부담은 여전한 과제다. 특히 구체적인 분야가 정해지지 않은 2000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수익성이 낮은 사업에 동원될 경우 우리 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정부 출자 2조 ‘한미전략투자공사’ 출범 임박

>> 1면 ‘3500억 3대미투자...’서 계속

앞서 산업부는 미국측의 투자 요청 분야를 놓고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공개한 바 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 2월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대미 프로젝트와 관련해 미측과 서너 가지 안을 놓고 세부 조율 중”이라며 “미측과 협의가 이뤄지는

대로 공식 발표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대미 투자를 위한 법적 토대는 이미 마련됐다. 지난달 12일 국회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을 통과시켰고, 1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적 절차가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출자하는 자본금 2조 원의

‘한미전략투자공사’가 조만간 출범하고, 정책금융기관과 민간 자본을 결합해 총 529조원 규모의 투자를 지휘하는 컨트론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현재 한미 실무진은 워싱턴 D.C.에서 루이지애나 LNG(액화천연가스) 수출 터미널, 지능형 전력망(Smart Grid), 소형모듈

원전(SMR) 등 에너지 인프라 분야를 유력한 1호 투자 후보군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대미투자 구조에서 한국 기업 참여 확대 방안도 추진 중이다. 국내 기업들이 공동 투자 또는 지분 참여 방식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해 미국 시장 진출 확대를 노린다는 전략이다. 특히

조선·건설·플랜트 기업들이 주요 참여 대상으로 거론된다. 미국 내 인프라 투자 확대 정책과 맞물리면서 국내 기업의 사업 기회도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전략적 틀을 짜고 있다”며 “상징성이 큰 1호 프로젝트를 발표되면 후속 투자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우리 경제의 모범, 명문장수기업 찾습니다

1 사업 개요

- 장기간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중견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
- 중소·중견기업 성장의 바람직한 기업상을 제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기업을 발굴하여 존경받는 기업문화를 확산

2 신청 자격

- 업력 45년 이상의 중소·중견기업(공고일 2026. 3. 26. 기준)
- 단,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제외

3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2026. 3. 26(목) ~ 4. 24(금)
- 신청방법: 제출서류 우편 및 이메일 접수
- 제출서류 및 세부사항 공고 확인
 - 중소벤처기업부(mss.go.kr) → 알림소식 → 사업공고 또는 명문장수기업 홈페이지(time-honored.co.kr) → 공지사항
- 접수처: [중소기업]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국민추천제: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중소기업부 홈페이지를 통해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이 될 만한 기업을 온라인으로 추천

- 추천기간: 2026. 3. 26(목) ~ 4. 10(금)
- 추천방법: 중소기업부 홈페이지(mss.go.kr) [민원참여] → 국민추천 → 하단 명문장수기업 확인란에서 기업 추천
- *이후 추천받은 기업에 추천·비용을 안내할 예정, 추천기업은 신청기간 내 신청서류 제출(명기방식 통일)

4 확인 절차



5 명문장수기업 지원사항

- 명문장수기업 확인서 발급(국문, 영문) 및 현판 부착
- 명문장수기업 마크 활용(생산제품 부착 및 회사 홍보에 활용)
-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출, 인력, 정책자금 등 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 그 외 국가가 인정한 희소성 있는 명예로서 사회적 존경, 기업의 대외 인지도 상승, 우수인력 유입촉진, 매출 증대 등 부수적 효과 기대

6 제도 상세안내

- [명문장수기업 홈페이지(time-honored.or.kr) → 공지사항] 명문장수기업 확인기준 가이드북 참고

7 문의

- 중소기업: 중소기업중앙회 기업경영정책실 02) 2124-3148
- 중견기업: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원지원실 02) 3275-0106



중소벤처기업부

KBIZ 중소기업중앙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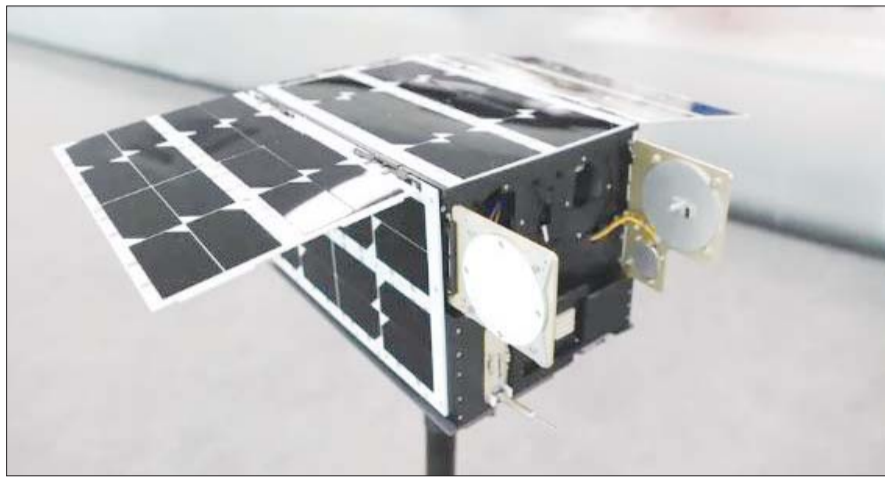
FOMEX 한국중견기업연합회

20억弗 우주 겨눈 삼성·SK... 'K-메모리' 포트폴리오 다변화

K-라드큐브, NASA 유인 임무 동행
삼성전자·SK하이닉스 메모리 탑재
관측 데이터 등 정상 교신은 실패
양사, AI 메모리 수요로 실적 개선
HBM 신규 수요처 발굴 필요성

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의 차세대 메모리 사업 확장 전략이 우주 실증을 계기로 시험대에 올랐다.

지난 2일 반세기 만의 유인 달 탐사 임무에 투입된 미국 '아르테미스 II' 로켓에 탑재된 한국 큐브위성 'K-라드큐브'는 단순한 상징성보다 실제 우주 방사선 환경에서 메모리 신뢰성을 검증하고, 위성·우주통신용 특수 시장으로 사업 저변을 넓힐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시험에 더 가까웠다는 평가다. 다만 미국 항공우주국(NASA) 유인 달 탐사 임무 '아르테미스 2호'에 동승한 한국 큐브위성 'K-라드큐브'가 정상 교신에 실패하면서 관측



사진은 실제 크기로 제작된 K-라드큐브 모형으로 우주에서 태양전지판과 안테나가 전개된 모습을 재현했다. /우주항공청

데이터 확보에는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5일 '우주 기반 메모리 시스템 시장 보고서 2026'에 따르면 글로벌 우주 기반 메모리 시스템 시장은 2026년 13억 7000만달러에서 2030년 19억 7000만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우주·위성 통신용 메모리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실증 결과가 향후 제품 신뢰

성 확보와 사업 확대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K-라드큐브는 한국의 첫 NASA 유인 임무 동행 큐브위성이다. 고지구타원 궤도(HEO)에서 우주 방사선 환경을 견뎌야 하는 것이 주임무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도 함께 탑재됐다. 우주항공청은 이번 탑재 목적에 대해 "고궤

도 방사선 환경에서의 작동 신뢰성 검증"이라고 설명했다. NASA도 K-라드큐브가 지구 주변 고방사선 구간인 밴앨런대를 통과하며 고도별 방사선량을 측정하는 임무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와SK하이닉스 메모리는 이 과정에서 ▲오류율 변화 ▲소자 열화 양상 ▲저장 정보 유지 특성 등을 점검하는 실증 대상으로 탑재됐다. 메모리가 방사선에 노출될 경우 단일사건업셋(SEU)이나 다중셀업셋(MCU) 같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실제 고방사선 궤도에서 데이터를 확보해 내구성을 검증하려는 목적이 컸다.

다만 이번 실증은 기대했던 데이터 확보로 이어지지 못했다. 우주항공청과 한국천문연구원 초기 교신 과정에서 일부 신호를 수신했지만, 관측 데이터 등 정상 교신에는 실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확보하려 했던 오류율 변화와 열화 양상, 저장 정보 유지 특성 데이터 회수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번 실증이 주목받는 배경에는 양사의 실적 구조도 자리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최근 실적이 HBM 등 인공지능(AI) 메모리에 크게 쏠린 만큼 중장기적으로는 사업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나온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메모리 실적은 사실상 HBM을 중심으로 개선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AI 붐에 따른 메모리 가격 강세로 올해 1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SK하이닉스 역시 HBM을 포함한 고부가 AI 메모리 수요에 힘입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실적이 HBM 중심 실적 구조가 강화될수록 중장기적으로 신규 수요처 발굴 필요성도 커질 것이라 분석이다. 이에 우주·방산·위성통신용 고신뢰 특수 메모리 시장 진출이 새로운 성장 축으로 거론되고 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metro

조선 3사, 1분기에 연간목표 20% 돌파... 고부가·방산 순항

HD한국조선해양, 67.4억弗 수주
삼성중공업, 31억弗... 목표 22%
한화오션, 총 11척... 23.2억弗 기록
친환경, 해양·방산 협력 확대 속도

국내 조선3사가 올해 1분기에 연간 수주 목표의 20%대를 뛰어넘으며 쾌조의 출발을 보였다. 고신가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액화천연가스(LNG)선과 유조선, 해양플랜트를 중심으로 추가 발주 기대도 이어지고 있다. 각사도 고부가선종 중심의 선별 수주와 친환경 기술, 해양·방산 협력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HD한국조선해양은 현재까지 총 66척, 67억 4000만달러를 수주해 연간 목표의 약 29%를 채웠다. 선종별로는 LNG운반선 10척, 컨테이너선 20척, LPG·암모니아운반선 9척, 원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에 위치한 NASSCO 조선소 전경. /삼성중공업

유운반선 7척, PC선 20척이다.

삼성중공업은 총 16척, 31억달러를 수주해 연간 목표의 약 22%를 달성했다. LNG운반선 6척, 에탄운반선(VLEC) 2척, 가스운반선(VLGC) 2척, 컨테이너선 2척, 원유운반선 4척이다.

한화오션은 총 11척, 23억 2000만달러

를 수주해 지난해 연간 수주 실적의 약 23% 수준을 기록했다. 세부적으로는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6척, LNG운반선 4척, 해상풍력발전기 설치선(WTI V) 1척이다. 통상 수주가 하반기에 집중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1분기 20%대 실적은 무난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올해 조선 시장은 완만한 조정 흐름 속에서도 고신가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신조선 가격은 다소 낮아졌지만 기존 수주잔량이 하락 폭을 제한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LNG선은 미국발 프로젝트와 노후선 교체 수요, 유조선은 운임 강세와 낮은 발주잔량, 해양은 고유가에 따른 투자 재개 가능성 등을 바탕으로 추가 발주 기대가 이어지고 있다.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 가시화도 긍정 요인이다. 다만 중동 리스크와 카타르 변수는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다.

각사는 수익성이 높은 선종 중심의 선별 전략을 유지하는 한편 친환경 기술 개발, 생산능력 확충, 해양·방산 협력 확대에 나서고 있다. HD한국조선해양은 친환경 연료 기반 엔진과 연료공급 시스템, 저

온가스 운송 설비 개발을 확대하고 있다.

한화오션은 거제조선소에 약 6000억 원을 투입해 부유식 도크와 크레인을 도입하고 있다. 오는 2027년 완공 시 상선 건조 능력 확대가 예상된다. 한화그룹은 한화필리조선소를 통해 지난달 미 해군 '차세대 군수지원함(NGLS)' 개념설계 협력 계약도 체결했다.

삼성중공업은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설비(FLNG) 등 해양 프로젝트 중심의 수주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최근 미국 연구 거점을 구축했고, 미 해군 NGLS 설계 사업 참여를 공식화했다.

윤현규 국립장원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는 "기존 관세 협약의 방향은 더 지켜봐야 하지만, 한·미 협력 구상으로 거론되는 3500억달러 중 1500억달러가 조선 분야 대미 투자로 제시된 만큼 한화의 미 해군 NGLS 개념설계 협력은 한·미 조선 협력 본격화의 신호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ledhale@



metro

석화업계, 고부가 신사업 속도... 단기간 본업 대체는 과제

LG화학, AI·非메모리 소재 영역 확대
롯데, 스페셜티·수소 등 사업구조 전환
석유화학 사업, 매출 상당 부분 차지

국내 석유화학업계가 공급과잉 장기화와 수익성 악화에 대응해 반도체·배터리·수소·전자소재 등 고부가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이들 사업이 기존 범용제품의 수익 기반을 단기간에 대체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품종 소량생산 구조인 만큼 범용 제품처럼 대규모 이익을 내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LG화학과 롯데케미칼 등 주요 석유화학기업들은 범용 제품 의존도를 낮추고 첨단소재와 에너지 신사업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LG화학은 김동춘 사장 취임 이후 조

직 쇄신과 첨단소재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반도체와 자동차 전장, 차세대 디스플레이를 핵심 축으로 삼고 메모리 반도체 소재에서 축적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AI와 비메모리용 소재까지 사업 영역을 넓힌다는 구상이다.

롯데케미칼도 사업 재편과 고부가 전환을 병행하고 있다. 회사는 2030년까지 기능성 소재 비중을 60% 이상으로 확대하고 스페셜티 중심의 사업 구조 전환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자회사 롯데엔지니어링플라스틱은 전남 울진산단에 연 50만톤 규모의 국내 최대 단일 컴파운딩 공장을 구축 중이다. 2026년 하반기 준공 이후에는 모빌리티와 IT용 고성능성 소재는 물론 피지컬 AI, 항공, 우주용 슈퍼 엔지니어링플라스틱까지 생산할 계획이다.

수소와 배터리 소재 투자도 병행하고

있다. 롯데SK에너지는 울산에서 20MW 규모의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상업운전에 들어갔고 2026년 말까지 총 80MW로 확대할 예정이다.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는 하이엔드 동박과 차세대 배터리 소재를 앞세워 배터리, AI 반도체 산업 공급 확대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고부가 사업 확대가 곧바로 실적 구조 변화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본업인 석유화학의 매출 비중이 여전히 큰 만큼 단기간에 수익 구조를 바꾸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LG화학은 지난해 전체 매출의 38.2%가 석유화학 사업 부문에서 나왔고 롯데케미칼은 석유화학에 해당하는 기초화학 사업 비중이 67.5%에 달했다.

/원관희 기자 wkh@



metro

국민연금 보장성 부족, 다른 상품으로 보완

▶▶ 1면 '길어지는 노후...'서 계속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이 조사한 1인당 최소 생계비인 139만 2000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거나 최소 납입 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국민연금의 보장성 부족을 다른 연금 상품으로 보완하는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연금탑)'를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는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퇴직연금·주택연금·연금저축 등 각종 연금제도와 금융상품을 활용해 충분한 노후 소득을 확보하는 전략이다. 연금제도와 상품의 특성을 이해하고, 자신의 소득 수준이나 자산 구조에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면 된다.

퇴직연금은 지난 2005년 기준 퇴직금

제도를 대체해 도입됐다. 특히 기존 퇴직금 제도와는 달리 적립금을 활용해 예금·주식·펀드 등에 투자해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고, 연금 형태로 지급 받으면 세제 혜택도 제공한다. 최근에는 적립금 운용을 전문가에게 위탁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의 법제화도 논의중으로, 운용의 어려움도 해소될 전망이다.

공적연금인 주택연금은 현재 보유중인 주택을 담보로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역모기지형 상품이다.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직접 보유한 부동산이 있는 경우 고려할 수 있다.

소득 이전을 위해서는 사적연금인 '연금저축'을 활용해야 한다. 연금저축은 금융기관에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금융기관이 이를 운용해 노후에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금융상품이다. /안승진 기자 asj1231@

KB금융그룹 |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해외반응은 좋은데
수출경험이 부족해서..”

수출입 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및
전문 컨설팅 제공

“누가 우리회사에
맞게 도와줄 순 없나요?”

전국에서 만나는
기업 전문가 및
중소기업 전담 SME지점장



KB국민은행
기업성장 단계별
토탈 솔루션

“기술은 있는데
자금이 문제네요”

2030년까지
생산적금융 93조 원 지원 계획

“회계에 송금에..
몸이 열개라도 모자라요”

복잡한 자금관리가 쉬워지는
ERP 연계 बैं킹 시스템

국민적 스케일의 금융 지원부터 수출 전략, 경영 관리까지-
KB국민은행이 기업에 필요한 모든 성장의 순간을 함께 합니다

기업의 모든 순간, 국민이 있다

KB국민행복 성장 프로젝트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상품(서비스) 계약 체결전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KB국민은행 고객센터: 1588-9999, KB국민은행 홈페이지: www.kbstar.com ※ KB국민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1290호(2026.3.23.), 유효기간 2026.3.23.~2027.3.22.까지



野 “지방정부 부담 증가” 주장에 李 “재정 여력 8.4조 늘어” 반박

“지원금 사업, 강제 아닌 선택사항
중앙정부가 70~80% 부담하는 것”
與 “사실 왜곡, 정치 선동” 비판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5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인해 지방 정부 부담이 늘었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말이 안 된다”고 한 목소리로 반박했다. 대통령과 여당이 해당 내용을 일제히 비판하고 나선 것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지급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지방정부 부담 비율이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당시 부담률인 10%(서울은 25%)에서 20%(서울은 30%)로 높아졌다는 내용의 기사를 첨부하며 “재정 부담 증가는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에서 지방정부 재정 여력 보강을 위해 지방정부에 주는 돈(지방교부세라 호칭)은 9조7000억원이고, 지원금 사업에 드는 지방정부 부담금은 1조3000억원이니 지방정부 재정여력은 8조4000억원 늘어난다”면서 “결론적으로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늘었다, 줄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확대된 재정여력에 대한 지방정부 자율 결정권을 침해하냐고 비판하는 건 몰라도, 재정 부담 증가는 말이 안 된다”면서 “이 사업은 강제가 아니니 지방정부는 20~30% 부담이 싫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안 해도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조금 더 부담해주시기를 바랄 수는 있지만,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금 중 중앙정부가 70~80% 부담해주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역시 국민의힘을 향해 “사실 왜곡을 넘어선 정치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번 추경은 지방에 약 9조7000억원의 재정을 보강하고, 실제 부담은 1조3000억원에 그친다”며 이 대통령과 같은 내용을 설명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숫자만 놓고 봐도 성립하지 않는 주장을 반복하는 이유는 분명하다”며 “민생 지원은 외면한 채, 어떻게든 정부 정책을 흠집 내겠다는 정치적 의도뿐”이라고 했다.

이어 “특히 ‘지방 부담’ 운운하는 태도는 더 노골적”이라며 “중앙정부가 대부분을 책임지고, 참여 여부도 자율인 사업을 두고 부담을 핑계 삼는 것은 사실상 지원하지 말자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유가로 국민의 삶이 벼랑 끝에 몰린 상황에서 조차, 국민의힘은 해법 대신 숫자 왜곡과 불안 조장에 매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을 향해 “민생을 해결할 의지도, 책임질 준비도 보이지 않는다”며 “지금 국민의힘이 남기고 있는 것은 민생 회복을 위한 대안이 아니라 발목 잡기라는 기록뿐”이라고 덧붙였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주호영·이진숙 무소속 출마 기류… 대구시장 4파전 가나

주호영, 가처분 신청 이의제기 예정
이진숙, 무소속 출마 의지 시사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공천 막판까지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당세가 가장 강하다는 대구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후보의 무소속 출마 변수로 4파전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위기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에서 컷오프된 주호영 국회의장은 오는 6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기각한 공천배제 가처분신청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예정이다. 앞서 남부지법은 지난 3일 주호영 부의장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고, 국민의힘은 이에 대구시장 후보를 6인 경선을 통해 정하기로 한 상태다.

하지만 문제는 컷오프된 주 부의장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제기된다는 점이다. 주 부의장은 오는 8일,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정치권에선 주 부의장이 무소속 출마 또는 컷오프 수용 중 입장을 정해 발표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주 부의장이 무소속 출마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다. 앞서 주



왼쪽부터 국민의힘 대구시장 공천에서 컷오프된 주호영 국회의장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뉴시스

부의장은 지난 3일 남부지법의 가처분 기각 결정 이후 “법원의 판단과 별개로 이번 공천 과정이 과연 당원과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였는지는 여전히 엄중하게 따져 물어야 한다”면서 “저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원칙과 상식을 지키는 길이 무엇인지 깊이 숙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역시 “시민경선을 통해 시민들의 선택을 받겠다”며 사실상 무소속 출마 의지를 나타내고 있어, 국민의힘 입장에서 2명의 무소속 출마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대구시장 선거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 국민의힘 후보,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주 부의장과 이 전 위원장 등 4파전으로 치러진다.

만일 보수 분열이 현실화되면 국민의힘은 사상 처음으로 대구시장을 민주당에 내줄 가능성이 높아진다.

국민의힘은 주 부의장이 당에 남아 선거를 지원하기를 바라고 있다. 이렇다면 이 전 위원장 역시 무소속 출마를 강행할 명분이 약해져서다.

여기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전 위원장에게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개적으로 권유했다. 장 대표는 이날 한 방송에서 “대구도 이진숙 후보를 필요로 하겠지만, 당은 이 후보를 국회에서 더 필요로 하고 있다”면서 “국회에 와서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과 맞서 싸워준다면 더 국민에 큰 기여를, 더 빛날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서예진 기자

국회 추경 26조 심사 돌입 여야 ‘삭감 vs 원안’ 충돌

여야 모두 추경 통과 필요성은 공감
삭감규모 따라 합의 vs 단독 갈릴 듯
이 대통령, 오는 7일 여야 대표 회동

국회가 이번 추경 26조 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사·처리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미국-이란 전쟁으로 상황이 엄중한 만큼 최대한 빠르게 속도를 내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를 앞둔 대표 행위라며 삭감을 요구하고 있어 충돌이 있을 전망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7~8일 추경안 논의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와 부별 심사를, 8~9일엔 소위원회 심사를 실시하고,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여야 모두 추경안 본회의 통과 자체엔 이견이 없는 분위기다. 하지만 예결위 협상에서 국민의힘 요구가 어디까지 반영되느냐에 따라 ‘합의 처리’와 ‘여당 단독 처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안 중 현금성 지원 등에 대해 대규모 삭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4조8252억원에 더해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가정용 미니태양광 보급, 석유비축사업,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국제청체납관리단 예산 등 6조원 가까이 되는 예산의 삭감을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예산들을 모두 삭감하고 ▲현행 유류세 인하 30%로 확대 ▲화물차·택시·택배업자 1인당 60만원 유류보조금 지원(4398억원) ▲푸드트럭 등 생계형 화물차운행자 1인당 60만원 유류보조금(3000억원) ▲자영업

자 배달·포장용기 반값 구매 1358억원 등을 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신재생에너지 지원, 문화·예술 지원 등 정부 원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동 사태 여파가 경제 전반으로 번지고 있기 때문에 특정 업종이 아닌 광범위한 경기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한정에 정책위의장과 이소영 예산결산정책조정위원장 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명의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책위는 국민의힘이 추경안을 ‘선거용’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가계에서부터 시작되는 연쇄적 타격을 완화하는데 그 필요성이 있다”며 “추경으로 물가 자극 우려가 있다는 주장 역시 근거가 부족하다. 오히려 이번 추경에는 석유 최고가격제, 유가연동보조금, 농축수산물 할인 등 물가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들이 대거 반영됐다”고 강조했다.

또 “고유가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 화석연료 의존을 줄이기 위한 재생에너지·전기차 보급 확대, K-패스 정책제 인하 등 대중교통 지원 확대를 포함한 5대 증액사항을 추진한다”며 ▲고유가 사각지대 지원 대책 마련 ▲재생에너지 확대 ▲대중교통 이용요금 지원 강화 ▲소상공인 지원 예산 증액 ▲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을 위한 추경안 편성을 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7일 여야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겸한 여야정 협의회를 열 예정이다. 이번 회동을 통해 이 대통령은 추경안 통과에 초당적 협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서예진 기자

조승래 “지선에 대통령 팔이 용납 못 해”

〈민주당 사무총장〉

‘李 사진·영상 활용 금지’ 공문 발송
친명계 “지침 즉각 철회하라” 반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6·3 지방선거 경선 후보자들에게 이재명 대통령 취임 전 이미지 등을 홍보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금지령’을 내린 것을 두고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 친이재명(친명)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나오는 가운데, 조승래 사무총장은 “(과거 영상을 활용해) 지금 대통령이 특정 후보를 응원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

5일 민주당에 따르면, 중앙당은 전일 조승래 사무총장 명의의 ‘이 대통령 취임 전 사진 및 영상의 홍보 활용 금지 안내의 건’ 공문을 각 사·도당에 두 차례 발송한 바 있다.

첫 공문에서 중앙당은 “취임 전 시점의 영상이라고 해도 대통령의 당무 개입 의혹으로 이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을 촉발할 소지가 매우 큰 사안”이라며 “해당 지침을 무시하면 강력한 조치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이후 구체적인 지침을 담은 공문을 재발송하고 “기준에 설치된 외벽 현수막과 기준에 각 후보가 사용 중인 명함 등의 홍보물은 사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대통령의 음성이 포함된 동영상 등의 매체를 홍보에 활용해 현재 대통령이 ‘특정 후보’를 지원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행위, 과거에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현재 시점인 것처럼 이용하는 등의 행위는 엄중히 금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당 친명계 의원을 중심으로 “취임 이전에 찍은 사진이 어떻게 현직 대통령의 당무 개입이 되는가”, “중앙당의 재고를 촉구한다”, “지침을 즉각 철회하라” 등의 반발이 나왔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5일 6·3 지방선거 슬로건 및 홍보캠페인 발표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4년 전) 영상에 대해 (특정) 후보를 응원하는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게재하면, 마치 지금 대통령이 특정 후보를 응원하는 것처럼 비춰진다고 말했다. /박경수 인턴기자 gws0325@

*본 광고는 AI를 활용한 이미지를 사용했습니다

“AI가 전기를 많이 먹는다는데, 갑자기 정전이 오면?”
“이 많은 차들을 움직일 에너지는 영원할까?”
“우리 아이들이 쓸 에너지는 남아있을까?”

세상이 던지는 질문은
앞으로 더 복잡해지겠지만
늘 그래왔듯 우리는 답을 찾을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보다
모두의 평범한 삶들이 더 빛날 수 있도록



세상이 에너지를 물을 때
이노베이션으로 답하다



“야구·축구 등 프로 스포츠 팀 응원하고 우대금리 받아요”

은행·카드사, 스포츠 특화 상품
신한은행 ‘SOL KBO 리그 적금’
응원팀 성적 따라 우대금리 적용
BNK부산-롯데, 광주-기아 등
지역 연고지 팀 응원상품 판매



지난 3월 28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KBO 2026 시즌 개막전에서 ki wiz와 LG트윈스의 경기가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프로야구(KBO)와 프로축구(K리그)를 비롯한 프로 스포츠가 인기를 끌면서 금융권에서도 스포츠 특화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은행권에서는 응원하는 팀의 성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응원 예·적금’을 판매한다. 카드사들은 스포츠 경기 관람때 혜택을 제공하는 특화 카드를 선보였다. 특히 올해는 이스포츠(E-Sports) 팬을 위한 특화 상품까지 등장해 ‘우리팀 응원’의 재미를 더하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프로야구(KBO) 타이틀 스폰서인 신한은행은 지난 달 28일 프로야구 시즌 개막을 맞아 응원하는 구단의 시즌 성적에 따라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2026 신한 SOL KBO 리그 적금’을 선보였다. 지난 2024년까지 판매됐던 ‘신한 프로야구 적금’의 후속 상품으로, 응원팀의 포스

트시즌 및 한국시리즈 진출 여부에 따라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신한은행은 자사 모바일뱅킹 앱 ‘신한 SOL’을 통해 프로야구 응원 플랫폼 ‘쏠야구 플러스’도 운영한다. 쏠야구 플러스는 KBO관련 상품 판매와 구장 방문 시 스마트 오더 기능을 제공하며, 월간 MVP 선정이나 경기 켈린더 등 프로 야구팬을 위한 기능을 다수 제공한다. 일일퀴즈, 출석체크 등에 참여해서 얻은 포인트를 적립해 관련 혜택도 교환할 수 있다.

지역 연고지 팀을 응원하는 상품도 판매된다. BNK부산은행은 올해도 롯데 타이거즈의 성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BNK가을야구 예·적금’을 선보였고, 광주은행도 KIA 타이거즈의 성적과 연계한 금융상품인 ‘KIA 타이거즈 우승기원 예·적금’을 판매한다. NH농협은행은 NC 다이노스를 응원하는 ‘NC 다이노스 위풍당당 적금’을 새롭게 선보였다.

프로야구 관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카드업계도 프로야구의 응

원 열기에 동참했다.

KB국민카드는 ‘두산베이스 KB카드’를 론칭해 홈경기 관람 및 굿즈 구매에 혜택을 제공한다. 삼성카드는 ‘삼성 라이온즈 삼성카드’와 ‘한화이글스 삼성카드’를 출시했고, 신한카드는 ‘LG트윈스 신한카드’와 ‘한화이글스 신한카드’를 선보였다. IBK기업은행도 ‘참! 좋은 kt wiz카드’를 출시했다.

지난 2월 개막한 프로축구(K리그)도 흥행을 지속 중인 만큼, 축구 응원 상품도 판매 중이다.

K리그의 타이틀 스폰서인 하나은행은 응원하는 팀을 선택하면 시즌 우승 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K리그 우승 적금’을 판매한다. K리그 관람 시 혜택을 제공하는 하나카드의 ‘K리그 축덕 카드’와의 연계 혜택도 제공한다. 광주은행도 광주FC 성적과 연계한 ‘광주FC 적금’을 선보였다.

이스포츠(E-Sports) 팬을 위한 특화 금융상품도 등장했다.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LCK)의 메인 파트너사인 우리은행은 지난 1일 이스포츠 응원 상품을 선보였다. 일일납입 적금 상품인 ‘우리 T-W

ON 적금’은 우리은행 모바일뱅킹 앱 ‘우리 WON뱅킹’ 내에 운영 중인 이스포츠관 이용 시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이스포츠관은 경기 예측 및 이스포츠 티켓 예매, 팬 페이지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응원 플랫폼이다.

우리은행은 이스포츠 구단 T1을 응원하는 체크카드 상품인 ‘카드의정석2 T-WON 체크카드’도 특판한다. 해당 카드는 T1의 국제대회 우승 기록 및 팀 컬러를 반영한 디자인으로 출시됐으며, 캐시백 혜택과 함께 굿즈 응모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10대 팬이 많은 이스포츠의 특성을 반영해 청소년 서비스인 ‘우리틴틴’에서도 같은 디자인의 카드를 발급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만큼 스포츠 관련 상품들도 매년 인기를 끌고 있다”라면서 “특히 최근에는 충성도가 높고 소비 활동도 활발한 스포츠 팬들의 특성을 반영해 플랫폼 이용이나 소비활동에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들도 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metro

“다주택자, 대출비중 낮아... 효과 제한적”

기름값 폭등... 카드사 ‘주유 캐시백’ 혜택

부동산 현장 르포

‘주담대 제한’ 서울 곳곳 반응

정부가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막는 카드까지 꺼내 들었지만 서울 핵심지 시장을 흔들기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2026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통해 오는 17일부터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 상환 부담이 커진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주택을 팔게 해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세입자가 있는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는 만기 연장을 허용하며, 무주택자의 ‘갭투자’는 한시적으로 허용해 매물 소화를 유도한다. 정부는 올해 약 1만2000구가 시장에 나올 수 있다고 예상한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다주택자를 향한 추가 규제가 매물 출회와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 사이에선 강남3구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매물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과 대출 의존도가 높은 외곽 지역에서 가격 조정 압력이 커질 것이라 분석이 엇갈렸다.

◆ 강남권 ‘대출 영향 제한적’

정책 발표 다음 날 찾은 서울 서초구 부동산중개업소에선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반포동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이곳은 다주택자의 대출 비중이 낮아 만기 연장을 금지해도 매도 압박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전세 수요도 꾸준해서 굳이 집을 팔 필요가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서 “양도세 종과를 앞두고 이미 나올 매물은 상당 부분 정리



서울 성북구 길음뉴타운 아파트 단지. /성채리 인턴기자

강남·송파, 매도로 이어지지 않고 실수요자에 매물 돌아갈 지도 미지수

집주인, 되레 세입자 전세 몰릴수도 서울 외곽선 매수심리 위축 분위기

됐고 급매도 많지 않다”며 “대출 의존도가 높은 외곽 지역에서나 매물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송파구 역시 분위기는 비슷하다. 헬리오시티 아파트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고가 주택은 애초에 대출 비중이 낮다”며 “대출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아니면 매도보다는 버티려는 심리가 강하다”고 말했다.

매물이 나오더라도 이를 받아줄 수요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5일 “무주택자에게 갭투자를 열어줘도 자금 여력이 부족하면 실제 거래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집이 정말 필요한 실수요자에게 매물이 얼마나 돌아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세시장에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대출을 안고 있는 집주인이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세가를 올리거나, 더 저렴한 주택으로

이동하면서 부담을 세입자에게 넘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 외곽지역 가격 조정 vs 상승

성북구를 비롯한 서울 외곽지역에서는 매수 심리 위축이 뚜렷한 분위기다. 같은 거래 부진 상황을 두고 향후 집값 방향에 대한 해석은 엇갈린다. 수요 위축에 따른 가격 조정 가능성과 매물 잠김에 따른 상승 압력이 동시에 제기됐다.

길음역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갭투자가 막히면서 수요 자체가 줄어든 상황”이라며 “매물 공급보다 수요 감소 폭이 큰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가격이 버티고 있지만 수요가 받쳐주지 못하면 집값이 떨어지는 건 시간문제”라고 내다봤다.

반면 또 다른 부동산 관계자는 매물 감소 신호에 주목했다. 그는 “매수자는 가격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매도자는 가격을 내리지는 않는 분위기”라며 “거래가 안 되면 매도자가 차리리 증여를 선택해 시장에 풀리는 매물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5월 9일 양도세 종과 유예 종료 이후에는 오히려 매물 잠김이 심해지면서 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다섯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12% 오르며 상승폭이 확대됐다. 특히 강북권이 상승세를 이끌었는데, 성북구는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인 0.27%를 기록했다. 시장에서는 15억원 이하 중저가 단지를 중심으로 한 실수요와 전월세 시장 불안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성북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길음뉴타운은 학군이 좋다고 소문이나 꾸준히 수요가 있다”며 “대출도 4억~6억까지 받을 수 있어서 저가 매물이 많이 나가는 편”이라고 귀띔했다. /성채리 인턴기자 cr56@

KB국민, 리터당 최대 150원 혜택
대중교통 ‘K-패스카드’ 추가 환급
신한카드, 5만원 주유시 3% 추가
내달까지 최대 2만원까지 캐시백
NH농협, 혜택 주유소 전국 확대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에서 시민이 주유를 하고 있다. /뉴시스

유가 쇼크 장기화 조짐이 계속되자 카드사들이 4~5월을 중심으로 주유 카드 혜택을 강화하고 나섰다. 주유 리터(L)당 할인액과 할인율을 높이는 한편, 카드 혜택이 적용되는 주유소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5일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값은 리터당 1946.42원이다. 전날보다 3.98원 오른 수준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강력 타격을 예고하면서 국제 유가가 또다시 폭등한 영향이다. 이날 장 마감 기준 5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111.54달러로 11.41% 급등했다.

유가 쇼크 장기화 조짐이 이어지자, 국내 카드사들은 주유 카드 혜택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KB국민카드는 정액형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KB국민카드의 주유 특화 카드로 주유할 경우 리터당 추가 50원을 더해 최대 150원의 혜택을 지급한다. 해당 카드를 신규 발급하는 고객에게는 연회비를 100% 캐시백해 준다.

고유가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고객 대상 혜택도 있다. 내달까지 추첨을 통해 ‘KB국민 K-패스카드’ 이용 고객 5만 명에게 K-패스 환급금의 30%를 추가 지원한다.

신한카드는 정률형 할인 혜택을 선보인다. 내달까지 주유 특화 카드인 ‘딤오일’과 ‘알피엠플러스 플래티늄샵’ 카드

로 5만원 이상 주유하는 고객들에게 이용 금액의 3%를 추가로 캐시백해 준다. 이달과 내달 각각 1만원 한도로 최대 2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카드 신규 발급 고객에게는 발급 첫 해 한정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단, 카드 발급 후 10만원 이상 이용해야 한다.

NH농협카드는 혜택 적용 주유소 범위를 전국 단위로 확대했다. 내달까지 모든 주유소에서 NH농협 개인 신용카드로 건당 3만원 이상 결제한 고객에게 리터당 50원의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행사 기간 내 1인당 월 한도 500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바른 오일 앤드 패스카드’의 경우 전국 모든 주유소에서 전월 실적에 따라 월 최대 3만원까지 5% 청구할인을 추가 제공한다. GS칼텍스나 농협 주유소 이용 시에는 전월 실적에 따라 리터당 최대 150원의 기본 할인에 이번 프로모션 혜택이 더해져 리터당 최대 200원 수준의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NH 올윈파이크드’는 전월 실적에 따라 주유비 최대 15%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업계 관계자는 “연이은 유류비 상승으로 가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체감 혜택을 제공하고 자 이벤트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美 철강관세 부담 확대... 가전업계, 생산지 재조정 가능성

철강 비중 높은 대형가전 직격탄
삼성·LG전자, 대응 시나리오 점검
일각선 제한적인 가격 인상 전망도

미국의 관세 조치가 가전업계로 확산되면서 수익성과 공급망을 동시에 압박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철강 비중이 높은 대형 가전을 중심으로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국내 업체들은 생산 전략 재조정 여부를 두고 고심하는 모습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일(현지시간)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이 높은 파생 제품에 대해 전체 가격을 기준으로 25%의 일괄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에 서명했다. 이에 과세 기준이 완제품 전체로 확대되면서 세탁기·냉장고 등 철강 비중이 높은 대형 가전을 생산하는 국내 가전업체에도 관세 부과 영향을 파악하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철강은 대형 가전제품 원가의 약 30%를 차지하는 핵심 소재다.



멕시코에 위치한 삼성전자 캐퍼타로 공장.

/삼성전자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가전업계는 지난해 6월 철강 함량 기준 관세가 도입된 이후에도 미국 시장 내 한국산 가전 점유율이 확대된 점을 고려할 때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 시각도 나온다. 다만 가전 사업의 수익성이 점차 둔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만큼 관련 업계는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

고 있다. 삼성전자 VD·DA사업부의 경우 지난해 약 2000억원 규모의 연간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는 손실 폭이 더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LG전자의 TV·IT제품을 담당하는 MS사업본부 역시 지난해 7509억원의 연간 적자를 기록하는 등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오는 7월로 예정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재협상도 변수로 꼽힌다. 현재 멕시코산 제품에는 상호관세가 부과되지 않아 국내 가전 업체들은 멕시코를 북미 시장 공략을 위한 핵심 우회 생산 기지로 활용해왔다. 다만 재협상에서 관세 구조가 달라질 경우 그간 구축해온 공급망을 재조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따른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북미 공급망 전략을 점검하며 대응에 나서고 있다. 앞서 삼성전자는 멕시코 건조기 생산 일부를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공장으로 옮기는 방안을, LG전자는 멕시코 냉장고 생산 일부를 테네시 공장으로 돌리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 등 당시 대외 환경 변화에 맞춰 생산체계를 유연하게 조정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도 올 초 보고서 통해 '트럼프식 관세 압박'이 한국 가전업체들의 생산 전략 변화에 영향

을 미치고 있다고 짚은 바 있다. 이번 조치를 단순한 통관 비용 증가를 넘어 북미 생산 거점 배치와 조달 구조, 유통 채널의 가격 정책까지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미국으로 들어가는 완제품 비중이 높은 품목일수록 현지 생산 확대 압박이 커질 수 있다는 시각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중동 정세, 물류비, 환율 등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관세만으로 생산 전략을 크게 바꾸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나온다. 가격 인상 역시 제한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관세 부담 확대에 따라 생산지 조정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단기간 내 구조 변화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수익성 압박이 이어질 경우 점진적인 대응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metro

“부산공장, 르노그룹 생산·수출 핵심 역할”



프랑수아 프로보
르노그룹 회장

국내 생산거점·협력 업체 점검
“전기차 중심 시장 경쟁력 강화”



르노 그룹 프랑수아 프로보 회장

“르노코리아는 르노그룹의 차량 생산 및 수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

지난 2011년부터 5년여간 르노삼성자동차 사장으로 재직하는 등 한국과 각별한 인연을 맺고 있는 프랑수아 프로보 르노그룹 회장이 르노코리아 부산 공장의 중요성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프로보 회장은 지난 2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의 르노테크놀로지코리아 등을 방문해 주요 분야별 미팅을 진행하는 등 르노코리아의 중장기 전략을 점검했다.

특히 르노코리아의 그랑 콜레오스에 이어 신형 하이브리드 SUV 필랑트가 국내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는 등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을 찾아 현지

생산 거점과 협력 업체와 소통을 강화하며 한국의 경쟁력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프로보 르노 그룹 회장은 지난 3일 JW메리어트 서울 호텔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기술 요구 수준이 높은 한국은 D·E 세그먼트 중심의 성장 속에서 전동화 트렌드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지능형 차량 분야의 파일럿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며 “그룹의 중장기 전략인 ‘퓨처레디 플랜’에도 르노코리아의 역할이 중

요하다”고 말했다.

르노 그룹의 퓨처레디 플랜은 2030년까지 신모델 36종을 출시하고 전동화 및 글로벌 라인업 확대를 가속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한국을 인도·모로코·터키·라틴아메리카와 함께 5대 글로벌 허브로 지정했다. 퓨처레디 플랜에서 르노코리아의 역할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 국내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라인업 강화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프로보 회장은 “한국에서는 단계적으로 라인업을 확대할 예정이며 공격적으로 판매량 확대에 집중하기 보다 전동화와 브랜드 강화를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르노그룹은 향후에도 전기차 중심 전략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르노 브랜드는 유럽 시장에서 2030년까지 전체 판매의 50%를 순수 전기차로, 나머지 50%를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는 이번 방문 기간동안 LG전자,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 등 국내 기업과의 만남을 갖고 협력 방안들을 모색했다. /양성운 기자 ysw@

삼성 ‘반도체’·LG ‘B2B’ 실적 반등 예고

양사, 내일 1분기 잠정실적 발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오는 7일 나란히 올해 1분기 잠정실적을 발표한다. 반도체 호황을 등에 업은 삼성전자와, 가전·기업 간 거래(B2B) 사업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낸 LG전자가 서로 다른 성장축을 기반으로 실적 반등을 예고하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1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약 40조원 수준으로 형성되고 있다. 전월 대비 10% 이상 상승된 수치다. 올해 초반 해도 30조원대 초반에 머물렀던 전망치는 반도체 수출이 3개월 연속 100%대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빠르게 높아졌다.

이 같은 전망이 현실화될 경우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20조1000억원)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실적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경신하게 된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 DS부문이 약 37조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전체 실

적을 견인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스마트폰·가전 사업을 담당하는 DX(디바이스경험) 부문은 약 3조원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기여도가 낮아질 전망이다.

LG전자는 ‘체질 개선’ 효과가 실적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LG전자의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각각 23조2822억원, 1조3755억원이다. 매출이 23조원을 넘길 경우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이다.

특히 가전 구축 모델 확산과 함께,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수요를 겨냥한 냉난방공조(HVAC) 등 B2B 사업 비중 확대가 실적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1분기 실적을 계기로 삼성전자는 반도체 중심의 실적 반등을, LG전자는 사업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한 체질 개선 성과를 각각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차현정 기자 hyeon@

현대차그룹, 고성능차 시장 ‘게임체인저’ 부상

아이오닉 등 글로벌 어워즈 휩쓸어

현대자동차그룹이 프리미엄 브랜드가 주도하는 고성능차 시장에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현대차그룹이 세계 3대 자동차 상으로 꼽히는 월드카 어워즈의 고성능차 부문에서 포르쉐, 아우디, 맥라렌, BMW와 같은 럭셔리·프리미엄 브랜드를 꺾고 또다시 이름을 올렸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2023년 기아 EV6 GT로 처음 이 벼를 짰고, 2024년 아이오닉 5N에 이어 올해 아이오닉 6N까지 최근 4년 중 3차례 수상하며

고성능차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아이오닉 6N은 세계 3대 자동차 상으로 꼽히는 월드카 어워즈에서 ‘세계 올해의 고성능 자동차’에 선정됐다. 이는 내연기관의 기술력과 브랜드 전통으로 프리미엄 브랜드가 주도하던 고성능차 시장에 현대차그룹이 전동화 기술을 앞세워 새로운 경쟁구도를 형성하면서 이같은 지각변동이 가능해졌다는 분석이다.

월드카 어워즈 심사위원 조보니미르 유르치치는 아이오닉 6N에 대해 “현재 경쟁이 매우 치열한 고성능 전기차 시장

에서 많은 모델이 빠르게 달릴 수 있지만 운전의 재미, 정밀함, 진정한 주행 감각을 동시에 갖춘 차는 많지 않다”며 “아이오닉 6N은 가장 비싼 모델도 아니고 제원상 가장 끝에 있지도 않지만 까다로운 도로에서 정통 스포츠카처럼 움직일 수 있는 차”라고 평가했다.

아이오닉 6N은 지난해 7월 영국 굿우드 페스티벌 오브 스피드에서 첫 공개된 이후 올해 왓카 어워즈 ‘최고의 고성능 전기차’, 탑기어 EV 어워즈 ‘운전자들 위한 최고의 차’에도 선정되며 글로벌 주요 매체의 호평을 이어가고 있다. /양성운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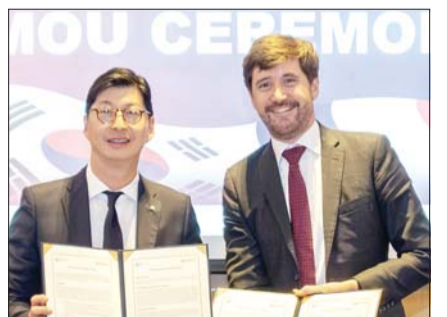
GS칼텍스-베올리아, 포괄적 업무협약

환경분야 등 통합 솔루션 공동 개발

GS칼텍스는 지난 3일 글로벌 환경 솔루션 기업 베올리아와 포괄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GS칼텍스 여수공장의 유틸리티 운영 혁신 및 지속가능 경영 강화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이뤄졌다. 양사는 기존의 단편적인 수처리 협력 관계를 넘어 미래 전략을 공유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협력 수준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프랑스에 본사를 둔 베올리아는 물·폐기물·에너지 관리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다.

양사는 산업계 전반의 환경 규제 강화



허세홍 GS칼텍스 부회장(왼쪽), 크리스토프 마케 베올리아 글로벌 사업총괄 선임부사장이 지난 3일 포괄적 업무협약(MOU)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GS칼텍스

와 에너지 효율 제고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에너지·디지털 전 영역에서 통합 솔루션을 공동 개발·적용할 계획이다.

/원관희 기자 wkh@

“알레르기 진단 ‘글로벌 강자’ 목표... 올해 100개국 수출할 것”

메트로가 만난 기업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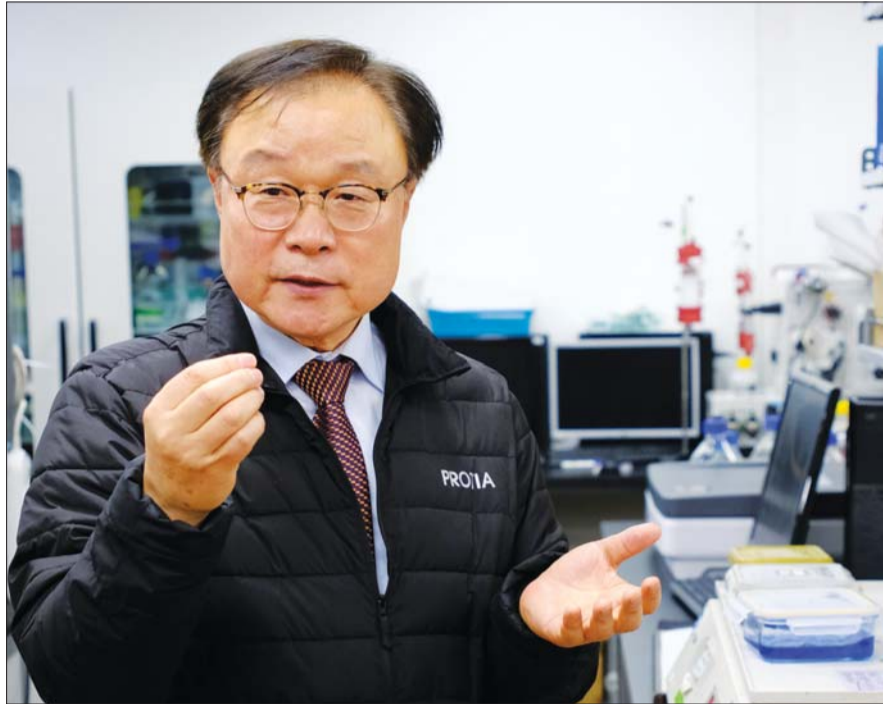
임국진 프로티아 대표

세계 최대 ‘192라인 진단키트’ 개발 1회 176종 알레르기 동시 검사 독일 주도 韓시장 국산으로 대체 확보한 알러젠만 390종 달해 반려동물·항생제감수성 진단 진출 “업계 최고 연봉 회사 만들 것”

21세기 질병으로 불리는 알레르기 진단 분야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K-중소기업’이 있다. ‘세계 최대’인 ‘192라인 탑재 알레르기 라인형 다중진단키트’를 개발해 독일 등이 주도해 왔던 한국시장을 완벽하게 국산으로 대체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인체용 알레르기(알러지) 진단시약 등을 중심으로 해외에 수출하는 나라만 80개국에 달했고 올해 ‘수출 100개국’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151억원이었던 매출을 2030년에 1000억원까지 올리는 당찬 목표도 세웠다.

임국진 프로티아 대표(사진)는 “우리 회사가 잘 될수록 세상은 건강해진다”고 생각한다면서 “알러지 검사방법은 전통적인 단일혈청검사, 피부자극 검사에서 다중진단(MAST) 검사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다. MAST 검사는 비용이 저렴



하고 정밀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알러지는 치료시장보다 진단시장이 크다. 세계 시장이 현재 10조원 정도다. 국내에서의 성공 경험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더욱 공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약 40%(2023년 기준)가 알러지의 영향을 받고 있고, 수치는 매년 10~15%씩 늘어나고 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알러지로 고생한다. 봄만되면 꽃가루나 먼지 때문에 비염, 눈충혈로 병원을 찾는 것이 대표적이다. 알러지 원인 물질은 화학제제, 견과류, 콩류, 달걀, 생선, 동물, 곤충의 독 등 다양하다. 이들은 아토피

피부염, 천식, 접촉성 피부염, 두드러기, 구토 등의 과민면역반응을 유발한다.

프로티아는 특허기술인 PLA(Parallel Line Array)를 이용해 전세계에서 1회 최대 동시검사수를 자랑하는 제품을 개발해 국내에서 시장을 빠르게 넓혀가고 있다.

임 대표는 “192개 라인으로 이뤄진 검사키트는 1회에 176종의 알러지를 검사할 수 있어 효율적이다. 특히 검사에 필요한 혈액(요구 검체량)은 50~150ul이면 충분해 보통 300~500ul이 필요한 다른 검사키트보다 적은 혈액으로 검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선 알러지 유발물질인 ‘알러젠’을 확보하는 것이 최대 관건이다. 프로티아가 현재 연구개발(R&D)을 통해 갖춰놓은 알러젠은 식품(181종), 꽃가루(70종), 세균·곰팡이(26종), 동물 털·곤충(28종) 등 총 390종에 이른다. 프로티아는 현재 64라인, 96라인, 128라인을 중심으로 제품을 다양화해 국내외에 공급하고 있다.

2014년 당시 처음 선보인 프로티아의 알러지 진단 제품은 현재 국내 시장 점유율만 45%를 넘어설 정도로 독보적이다. 알러지 제외진단 시약을 분석하는 하드웨어인 진단장비도 지난해 전체 매출의 17%에 육박하는 등 장비와 키트가 ‘쌍두마차’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사람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시장 확대에 따라 개, 고양이 그리고 말의 알러지 진단을 위한 64라인 검사키트도 개발해 시판하고 있다. 애완동물 면역진단 글로벌 시장 규모는 지난해 2조원에서 2030년께는 3조3000억원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프로티아의 ‘동물용 알레르기 제외 진단키트’는 두가지 모델로, 125종의 동물 알러지를 진단할 수 있다. 과거엔 동물의 피(검체)를 해외로 보내 결과를 받는데 4주 정도의 기간이 걸렸지만 지금은 하루면 충분하다.

프로티아의 동물용 진단키트는 국내에선 최초이자 유일한 허가 제품으로, 2022년 6월에 미국 시장에 처음 진출하기도 했다.

회사는 항생제감수성(AST) 진단 분야에도 진출했다.

임 대표는 “폐혈증 환자의 경우 시간당 생존률은 9%씩 줄어들 정도로 빠른 검사가 관건이다. 기존의 검사방식은 검사만 8~20시간이 걸리고 항생제 처방까지는 사흘 정도가 필요했다. 하지만 우리가 개발한 전기용량 측정 방식의 신기술을 적용한 진단키트·장비는 검사후 3시간 정도면 결과가 나오고 이에 따라 항생제 처방까지 하루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프로티아가 현재 해외시장 공략을 위해 확보한 판매망(대리점)은 90곳에 달한다. 이를 통해 러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수출이 늘고 있다. 남미와 아프리카도 판매망을 갖추며 사실상 전세계에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루트를 만들어냈다.

“나를·회사를·사회를 행복하게”가 회사의 모토이자 지향점이다. 내후년쯤 엔바이오기업 중에서 월급을 제일 많이 받는 회사를 만들 것이다.”

임 대표는 연세대 생화학박사 출신으로 LG생명과학(현 LG화학)에서 백신 연구 개발팀장, 진단의학 사업팀장 등을 역임했다. 연세대 나노메디칼 국가핵심 연구센터 겸임교수도 했다. 2010년에 프로티아를 인수해 현재 경영·연구를 총괄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metro

전기차 넘어 ESS·AI 인프라로 R&D 확장

K-배터리 3사, 수요처 다변화 본격화 데이터센터·ESS·로봇 수요 선점 전고체·소듐전지 개발도 속도

국내 배터리 3사가 전기차 중심이던 연구개발(R&D) 전략을 에너지 인프라 전반으로 확장하고 있다. 중국 업체들이 대규모 양산 능력과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자 국내 기업들은 에너지저장장치(ESS), 데이터센터 전력, 로봇 등 새로운 수요처를 겨냥해 기술 활용 범위를 넓히는 한편 전고체 배터리 등 차세대 기술 확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3월 업계에 따르면 국내 배터리 3사의 지난해 연구개발(R&D) 투자액은 3조 606억원으로 전년(2조 6626억원)보다 크게 증가했다. 전기차 수요 둔화와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배터리 업계는 기존 자동차전지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ESS와 전력 솔루션



배터리3사 로고.

/각사

선, 데이터센터 연계 분야 등으로 연구개발의 무게중심을 넓히고 있다.

삼성SDI는 지난해 R&D에 전년 대비 9% 증가한 1조 4209억원을 투자했다. 에너지저장장치(ESS)용 배터리 솔루션을 비롯해 AI 데이터센터 핵심 설비인 무정전전원장치(UPS)와 배터리백업유닛(BBU)에 적용되는 초고출력 배터리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성능 로봇용 배터리 협력과 전고체 배터리 실증도 함께 추진하며 산업용·차세대 배터리 경쟁력 강화에 힘을 싣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해 R&D에

전년 대비 22% 늘어난 1조 3275억원을 투입했다. ESS와 배터리 재활용, BaaS(배터리 서비스)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는 한편 전고체·바이폴라·소듐전지 등 차세대 기술 개발과 배터리관리시스템(BMS) 고도화도 병행하고 있다. 수요처 다변화와 차세대 기술 선점을 동시에 추진하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SK온도 지난해 연구개발(R&D)에 3121억원을 투자해 2024년보다 12.7% 늘렸다. 미국과 신재생에너지 연계 시장을 중심으로 ESS 사업을 확대하고, 셀 생산라인 효율화와 ESS 전용 라인 확보를 통해 관련 사업 기반을 넓혀겠다는 방향을 잡았다. 여기에 AI 데이터센터용 전력공급 시스템과 제어·운영 솔루션, 서버 냉각 솔루션, ESS 액침냉각 장치 등도 함께 추진하며 배터리 셀을 넘어 에너지 솔루션 전반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원관희 기자 wkh@

‘소통마루’ 본격 가동... 현장밀착 소통 강화

소진공, 협회·단체와 정례 협의회 구성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 협회, 단체와 현장 중심의 정책 소통 강화를 위해 정책 협의회인 ‘소통마루’를 본격 출범했다.

5일 소진공에 따르면 ‘소통마루’는 소상공인 협·단체와의 정례적인 정책 협의회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했다.

이를 위해 최근 대전에 있는 소진공 본부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

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총 16개 협·단체 대표와 관계자 약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가졌다.

출범식에선 소진공 슬로건인 ‘소상공인의 가치, 소진공이 같이 만듭니다’를 활용해 ‘소상공인의 가치, 같이 만듭시다’라는 메시지를 담은 피켓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소상공인과 함께 정책을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승호 기자

LG 스타일러, 글로벌 누적판매 200만대 돌파

2011년 출시 후 의류관리 시장 개척 트루스팀 등 200여건 특허 보유

LG전자는 자사의 의류 관리 가전 ‘LG 스타일러 오브제컬렉션’의 최근 글로벌 누적 판매량이 200만대를 돌파했다고 5일 밝혔다.

LG 스타일러는 2011년 처음 출시된 이후 10년 만인 2021년에 누적 판매 100만대를 달성한 바 있다. 5년 만에 200만대를 넘어선다는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회사 측은 “LG 스타일러는 의류 관리 가전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다”며 “고객의 라이프스타일 변화를 이끌며 ‘필수 가전’으로 자리 잡았다”고 전했다.

LG전자는 2016년 미국·중국·대만 등을 시작으로 해외 판매를 확대해 현재 글로벌 27개국에서 LG 스타일러를 판매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와 북미 시장의 성장세가 두드러진다. 2025년 기준 중국·대만·미국의 매출은 전년 대비 30% 이상 성장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교복과 정장 등 매일 세탁하기 어려운 의류를 자주 입는 문화와 함께 위생과 청결에 대한 높은 관심이 수요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LG전자는 모터·컴프레서·스팀 제너레이터 등 기술을 기반으로 ‘트루스팀’과 ‘무빙행어’ 등 200여 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트루스팀은 물을 끓여 만든 고온 스팀을 분사해 유해 세균 10종과 바이러스 11종을 99.99%까지 살균하고, 빈대와 집먼지진드기 등을 제거하는



LG 스타일러에 탑재된 ‘핸디형 고압 스티머’로 주름을 제거하는 모습. /LG전자

기능이다. 팟·담배·음식 냄새 등 생활 악취 18종을 99% 이상 탈취한다.

무빙행어는 의류를 좌우로 흔들며 먼지를 제거하고 스팀을 고르게 전달하는 기술이다. 2024년부터는 분당 최대 350회까지 제자리에서 회전하며 털어주는 ‘다이나믹 무빙행어’를 제품에 적용했다.

2026년형 신제품부터는 인공지능(AI) 기능이 적용됐다. ‘AI 스타일링’ 코스를 사용하면 AI가 의류 무게 데이터를 학습·분석해 최적의 스타일링을 제안한다. 스팀량과 온도 등을 조절해 ▲셔츠는 약 29분 ▲맨투맨 티셔츠나 재킷은 약 39분 ▲롱코트나 패딩은 최대 53분까지 맞춤 관리한다. 또 핸디형 고압 스티머를 탑재해 사용자가 원하는 부위를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외출 전 간편하게 주름을 제거하는 등 더욱 섬세한 의류 관리가 가능하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대한홍삼(주)

건강창업의 모든 것!

BH Since 1996 **대한홍삼 건강백화점**

공식 파트너 모집

“대한민국 건강을 지켜온 30년의 노하우,
이제 당신의 성공비즈니스가 됩니다.”

대한홍삼 건강백화점이란?

건강에 대한 모든 해답을 한 곳에!

대한홍삼 건강백화점은 인기 있고, 가성비 좋은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제품을 한자리에 모아 고객이 직접 체험하고,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결합 매장입니다.

• 취급품목

다양한 브랜드 홍삼 / 다양한 브랜드 건강식품 / 다양한 브랜드 건강기기 / 다양한 브랜드 건강의류
다양한 브랜드 건강용품 / 의료기기 등

• 판매방법

매장 / 웹카탈로그(도·소매) / 복지쇼핑몰(회원판매) / 체험방 / 특판 / 방판

차별화된 경쟁력

- ✓ 무자본부터 대형 매장까지
- ✓ 인기 있고 이윤 높은 건강상품을 지속적으로 공급
- ✓ 자사 TV방송국(브레인TV)을 통해 많은 시간 지속적으로 광고하고 제품 판매를 지원하는 건강강좌 프로그램 제공
- ✓ 웹카탈로그 시스템 지원 (홍보, 신규영업, 매장상품 관리)
- ✓ 복지몰 시스템 지원 (신뢰 기반의 고객 관리, 수익률 창출하는 새로운 기회)
- ✓ 30년 전통! 헛터그룹 및 협력사의 지원과 노하우의 집약 무료교육

창업비용

최저 창업비 (MIN. 398만원)로
최대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창업유형

유형 1. 매장 창업(일반매장, 건강체험관, 건강카페, 영업센터)
유형 2. 무점포 창업

BH 대한홍삼 [주] **창업문의 : 1522-7585**

www.koreahongsam.co.kr 본사 : 서울시 금천구 가마산로 96
대릉테크노타운8차 601호



Since 1996
헛터그룹
Haetter Group

(주)헛터
(주)헛터방송_브레인TV
(주)헛터라이프_헛터복지몰
한삼장홍삼(주)
대한홍삼(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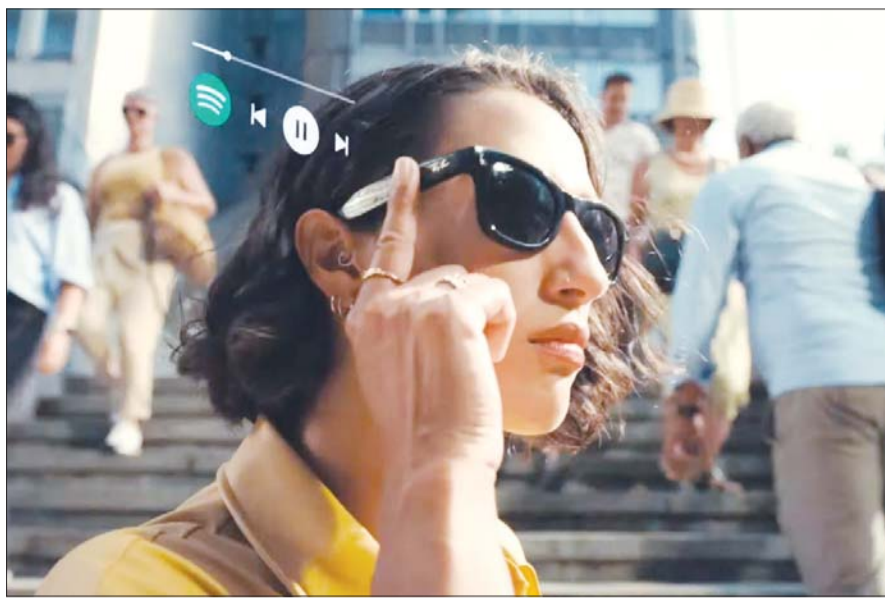
스마트폰 다음은 'AI 안경'... 빅테크, 시각 데이터 쟁탈전

메타, 독보적 선두... 신제품 선배
삼성전자-퀄컴, XR 생태계 확장
구글-젠틀몬스터와 개발 협력
엑스리얼, 韓 시장서 가성비 전략
발열·전력·무게 문제 해결해야
무단촬영 등 개인정보 침해 우려

인공지능(AI) 스마트글래스 시장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정보를 전달하는 보조기기를 넘어 사용자의 시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부상했다. 사용자 시야에서 생성되는 1인칭 데이터가 AI 서비스의 핵심 자원으로 떠오르면서, 이 데이터를 선점하고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주도권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해졌다.

5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해보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 스마트글래스를 차세대 개인 컴퓨팅의 핵심 플랫폼으로 보고, 사용자 시각 데이터를 선점하기 위한 기술 개발과 생태계 구축 경쟁을 본격화하고 있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에 따르면 AI 스마트글래스는 스마트폰 이후의 개인 컴퓨팅을 시선과 공간 기반 인터페이스로 전환하는 차세대 플랫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컴퓨팅이 클릭과



메타는 오는 14일 레이벤 메타 스크라이버와 블레이저를 출시 할 계획이다. /메타

검색 중심이었다면, 스마트글래스는 사용자의 시선과 주변 환경, 행동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의도와 상황을 반영하는 맥락 정보로 작동한다.

시장의 성장 속도 역시 파격적이다. 그랜드뷰리서치에 따르면 전 세계 스마트글래스 시장 규모는 2024년 19억3000만 달러로 추산되었으며, 2030년에는 82억60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성장률은 27.3%에 달할 전망이다. 옴디아에서는 올해 AI 스마트글래스 출하량이 1500만대로, 전년 대비 72%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현재 이 시장의 독보적인 선두 주자는 메타다. 70%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 중인 메타는 레이벤과의 협업을 통해 카메라 기반 사물 인식, 실시간 번역 기능을 결합하며 초기 수요를 장악했다. 메타는 오는 14일 '레이벤 메타 스크라이버'와 '블레이저' 등 신규 모델 출시를 앞두고 있으며, 기존 칩셋보다 업그레이드된 하드웨어와 와이파이 6 지원을 통해 실시간 영상 기반 AI 기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메타는 안경을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가전제품으로 정의하고 VR 사업 비중을 줄이는 대신 웨어러블 전략에 집중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구글, 퀄컴 연합군의 반격도 가시화됐다. 이들은 확장현실(XR) 플랫폼을 중심으로 하드웨어와 운영체제, 반도체를 결합한 생태계 확장을 시도 중이다.

특히 삼성전자는 구글, 아이웨어 브랜드 젠틀몬스터와 협력해 디자인과 실용성을 모두 잡은 AI 스마트글래스를 개발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 본격적인 판매가 예상된다. 여기에 애플 역시 디스플레이 탑재 여부에 따른 두 가지 유형의 제품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픈AI 또한 스크린리스 AI 단말기 개발에 착수하며 경쟁에 가세했다.

중국 기업들의 공세도 만만치 않다. 엑스리얼(XREAL)은 최근 자체 개발 프로세서인 'X1 칩'을 탑재한 '엑스리얼 1S'를 한국 시장에 공식 출시하며 가성비 전략을 내세웠다. 샤오미와 알리바바, 로키드 등은 자국 시장의 가파른 성장세를 등에 업고 개방형 전략과 이커머스 결합 기능을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중국 기업들은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제품군에서 강세를 보이며 사용자의 시야에 지능형 정보를 투사하는 '엠비언트 AI' 기능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기술적 진화와 함께 넘어야 할 산도 존재한다. 고성능 AI 연산과 영상 처리가 동시에 이뤄지면서 발생하는 발열과

전력 소비 문제는 여전히 병목 구간이다. 안경이라는 특성상, 무게를 50g 이하로 유지해야 하는 물리적 제약도 크다.

사용자의 시선이 닿는 모든 곳이 데이터가 되는 만큼, 무단 촬영이나 정보 식별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문제도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최근 케냐 나이로비에 본사를 둔 테크 기업 사마(Sama)의 내부고발자들은 "우리 직원들은 스마트글래스 중 하나인 '메타 레이벤'으로 촬영된 영상을 검토하고 라벨링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스마트글래스 사용자들이 옷을 벗거나 화장실을 가는 모습, 심지어 성관계를 맺는 모습까지 전송돼 라벨링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기술 활용 여부에 따른 생산성 격차가 커질 수 있는 만큼, 주변인이 촬영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고지 체계와 이용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SPRI 관계자는 "AI 글래스를 통한 영상·사진 촬영 시 주변 제3자가 촬영 사실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고지와 표시가 필요하다"며 "주변인의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도록 이용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metro

박윤영 대표 호남행... 취임 첫 AX 경영 행보

(KT)

첫 지역일정으로 전남·전북 방문
단단한 본질 기반 확실한 성장 방침
'AX 플랫폼 컴퍼니' 핵심역할 당부

박윤영 KT 대표가 취임 이후 첫번째 지역 일정으로 전남·전북을 찾아 현장 중심 경영을 본격화했다.

KT는 3일 박윤영 대표가 서부네트워크운용본부와 서부법인고객본부, KTcs 등 그룹사가 위치한 전남 광주 KT신안타워, KT광주타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가 취임사에서 밝힌 것처럼 KT 성장과 사업 정체성에 대한 단단한 본질을 기반으로 확실한 성장을 이루겠다는 경영 방침에 따른 행보다.

그는 현장에서 만난 직원들에게 "KT를 국가 기간통신사업자이자 인공지능(AI) 시대를 선도하는 '인공지능전환(AI



박윤영 KT 대표(왼쪽 첫번째)가 3일 전남과 전북 서부네트워크운용본부와 서부법인고객본부 등을 방문해 직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KT

X) 플랫폼 컴퍼니'로 발전시키기 위한 핵심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박 대표는 지난달 31일 취임 직후 첫 일정으로 경기 과천에 위치한 KT

네트워크·보안 관제센터를 찾았다. 통신 서비스 근간인 네트워크 안정성과 보안 경쟁력을 경영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김서현 기자

최수연, 마크롱 대통령과 AI·클라우드 논의

(네이버 대표)

'네이버랩스 유럽' 운영경험 등 소개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3일 방한한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만나 AI·클라우드 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면담에는 네이버 측에서 김희철 CFO,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 석상욱 네이버랩스 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프랑스 측에서도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배석했다.

최수연 대표는 프랑스 그르노블에 위치한 '네이버랩스 유럽' 운영 경험과 현지 투자 사례 등을 소개하고, 네이버의 AI 및 클라우드 기술 역량을 설명했다. 특히 자체 거대언어모델부터 데이터센터,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연결된 기술 구조를 바탕으로 프랑스 기업과의 협력



최수연 네이버 대표(왼쪽)와 김중출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표(오른쪽)가 3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프랑스 국빈오찬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가능성을 제시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의 AI 산업 육성 정책을 설명하며 양국 간 기술 교류와 투자 협력 확대에 관심을 나타냈다.

이번 면담은 프랑스 정부 요청으로 진행됐으며, 국내 주요 기업 경영진과의 개별 회동 일정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김서현 기자

LG U+, 유심 업데이트·무료교체 안내문자 1068만건 발송

내일까지 추가 안내 예정

LG유플러스는 13일부터 시작되는 전 고객 대상 유심 업데이트 및 무료 교체에 앞서, 지난 금요일까지 전체 발송 대상 고객의 64.1%인 1068만건의 고객 안내 문자 발송을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지난 3월 30일부터 고객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유심 업데이트 및 무료 교체 관련 안내를 순차 발송하고 있다. 6일에서 7일 중에는 MNO

480만명, MVNO 118만명 등 총 598만명에게 추가 안내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문자 안내는 고객들이 유심 업데이트와 무료 교체 절차를 사전에 이해하고, 본인 상황에 맞는 조치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LG유플러스는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문자 발송 이후 고객센터에는 유심 업데이트 가능 여부, 유심 업데이트와 유심 교체의 차이, 절차 등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유심 업데이트는 13일부터 U+one 앱 또는 LG유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매장 방문 없이 간편하게 조치할 수 있다.

또한 매장에서 유심 업데이트나 유심 무료 교체를 희망하는 고객은 8일부터 U+one 앱 또는 홈페이지 내 '매장 방문 예약' 서비스를 통해 사전 예약 후 방문하면 보다 편리하게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대상 확인은 8일부터 U+one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서현 기자

NC AI, '바르코'로 글로벌 창작 생태계 구축

크리에이터 창작·유통 등 전 과정 지원

NC AI가 생성형 AI '바르코'를 중심으로 크리에이터의 창작부터 유통·확산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글로벌 창작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전략은 AI를 단순한 창작 도구를 넘어 콘텐츠 경쟁력과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확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참여 크리에이터에게는 ▲바르코 3D ▲바르코 사운드 ▲바르코 보이스 ▲바르코 트랜스레이션 ▲바르코 아트패션

등 5개 서비스 활용을 위한 무료 크레딧이 제공된다. 우수 사례로 선정될 경우 글로벌 네트워크 연계와 주요 매체 노출, 유료 마케팅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지원 범위는 오프라인으로도 확대된다. 온라인 채널뿐 아니라 미디어월 전시 등 오프라인 접점을 활용한 콘텐츠 홍보가 병행되며, 향후 다양한 오프라인 플랫폼으로 확장될 예정이다.

NC AI는 향후 창작물이 교육, 강의, B2B 협업 등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해 크리에이터의 자립 기반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김서현 기자

중동·반도체 우려에 ‘셀코리아’… 외국인 비중 올해 최저

국제 유가 상승에 불확실성 증가 자금 빠지며 시총 점유율 36.66% 지분 높은 삼성전자 1분기 실적 주목



ChatGPT로 생성한 ‘한국주식시장’ 관련 이미지.

한국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대거 빠져나가고 있다.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의 시가총액 점유율은 올해 최저치인 36%대로 떨어졌다.

미국과 이란전쟁이 한층 격화하고 유가가 치솟으면서 달러 강제 현상이 두드러진 데다 구글이 인공지능(AI) 추론 영역에서 메모리 사용량을 6분의 1로 줄이는 ‘터보퀀트’ 기술을 공개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 대한 우려가 더해지면서 외국인의 ‘셀(sell) 반도체’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제2의 ‘동학개미’의 등장 이후 외국인 투자자들의 위세가 예전만 못하지만 이들의 셀 코리아가 계속되고 미국발 금리 인하 지연과 중동 전쟁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현실화할 경우 국내 증시가 큰 조정 국면에 진입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외국인 시총 비중 하락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 투

자는 3월 이후 이달 3일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35조8496억원 순매도했다. 하루 평균 순매도 규모가 1조4339억원인 셈이다. 특히 지난달 4일과 10일, 18일, 이달 3일 등 나흘을 제외하고는 연일 매도 우위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의 코스피 시가총액 비중은 지난달 31일 기준 36.66%까지 축소됐다.

외국인의 시가총액 비중은 지난해 말 36.27%를 기록한 이후 점차 확대돼 지난

2월 26일에는 38.10%까지 높아졌었다. 이후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발발하면서 강한 매도세에 비중이 축소됐다.

다만 이달 들어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세는 약화하고 있다. 지난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 이후 종전 기대감이 일순간 실망감으로 바뀌면서 코스피가 4.47% 하락했지만 외국인의 순매도액은 1406억원에 그쳤다. 이튿날인 3일에는 7994억원 순매수

하기도 했다. 12거래일 만의 순매수다. 이에 이달 들어 외국인 투자자는 310억 원 순매수를 기록했다.

코스피200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이달 들어 3거래일 연속 매수 우위를 기록했다.

◆삼전 실적 기대 vs 중동 리스크 확대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에 다시 복귀할지 주목한다.

전문가들은 삼성전자 1분기 실적에 주목한다. 외국인이 가장 많이 판 종목이 삼성전자다. 지난 3월 이후 18조4075억원어치를 팔았다. 전체 순매도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거래량 기준으로는 약 1억주(9949만주)를 순매도했으며, 전쟁 이후 대부분 거래일에서 매도 우위 흐름이 이어졌다. 외국인의 삼성전자 지분율은 이달 3일 기준 48.40%로, 2013년 9월 이후 약 12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하락했다.

삼성전자가 ‘깜짝 실적’을 발표하며 국내 경제 펀더멘털이 견조하다는 점을 보여준다면 외국인 투자자가 다시 ‘사자’로 돌아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증권가에서 예상하는 삼성전자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121조3946억

원, 41조8359억원으로 추정된다.

정해창·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대내적으로 7일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와 10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실적과 경기 펀더멘털을 확인할 예정”이라며 “이미 지정학적 불안 상황에서 견조한 3월 수출을 확인한 가운데 펀더멘털로 시선이 이동할 때 회복강도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중동 전쟁에 따른 불확실성과 국제유가 상승은 걸림돌이다.

박승민 국제금융센터 책임연구원은 “중동전쟁 발발 후 한국 경제의 높은 국제유가 민감도, 그간 누적된 주가 부담 등이 외국인의 주식 수요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전쟁 장기화 우려가 확대될 경우 추가적인 유출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했다.

국제 유가도 치명적이다. 노무라증권은 “중동 전쟁이 2~6개월간 지속되며 국제유가가 배럴당 110~130달러 수준에 형성될 경우 한국의 기업 마진 및 경제에 대한 압박이 강화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metro

전쟁 한달… 원유 ETN 상승률 상위권 석권

안전자산 ‘금·은’ 가격 상대적 부진 ‘삼성 블루버그 레버리지’ 상승률 1위

중동전쟁이 발발한 후 약 한 달간 원유 관련 투자상품들이 상장지수증권(ETN) 수익률 상위권에 나란히 이름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달러 선호가 강해지면서 전통적인 안전자산인 금·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부진함에 따라 금·은 ETN은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 상품이 높은 수익률을 보였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 거래일인 지난 2월 27일부터 지난 3일까지 ETN 상승률 1위는 ‘삼성 블루버그 레버리지 WTI 원유 선물 ETN B’가 차지했다. 해당 상품은 이 기간 2만4320원에서 7만2985원으로 200.10% 급등했다.

‘신한 블루버그 레버리지 WTI원유

선물 ETN B’(198.07%), ‘한투 블루버그 레버리지 WTI원유 선물 ETN B’(193.66%), ‘하나 S&P 레버리지 WTI 원유 선물 ETN B’(182.15%), ‘삼성 레버리지 WTI원유 선물 ETN’(181.99%) 등이 뒤를 이었다.

레버리지 WTI원유 선물 ETN은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 상장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의 일일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상품이다.

이외에도 수익률 상위 6~11위까지 모두 원유 상승에 베팅하는 ETN이 포진했다.

중동전쟁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원유 가격을 기초지수로 하는 상품의 주가가 큰 폭 상승한 것이다.

지난 2월 27일부터 지난 2일까지 WTI는 66.4%, 브렌트유는 49.6% 각각 상

승했다. 현재 국내에 상장된 원유 관련 ETN은 WTI에 투자하는 상품만 있다.

금·은 ETN은 인버스 상품이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미래에셋 인버스 2X 은 선물 ETN B’(41.46%), ‘신한 인버스 2X 은 선물 ETN(H)(37.21%), ‘신한 인버스 2X 금 선물 ETN’(30.05%), ‘삼성 인버스 2X 은 선물 ETN(H)(28.13%)이 각각 상승률 12, 14, 18, 19위로 집계됐다.

반면 금·은 가격 상승에 베팅한 레버리지 상품인 ‘KB S&P 레버리지 은 선물 ETN(H)(-37.46%), ‘삼성레버리지 은 선물 ETN(H)(-36.79%), ‘신한 레버리지 은 선물 ENT(H)(-36.26%), ‘N2 레버리지 은 선물 ETN(H)(-35.28%)은 수익률 하위 11~12위와 14~15위에 나란히 올랐다.

/신하은 기자 godhe@

신한탄소중립펀드, 수탁고 1000억 돌파

1년 수익률 105.18% 기록

신한자산운용은 ‘신한글로벌탄소중립솔루션펀드(H)’의 수탁고가 1000억 원을 돌파했다고 5일 밝혔다.

해당 펀드는 올해에만 272억원의 자금이 유입되며 1051억원 규모로 성장했다. 같은 기간 해외주식형 공모펀드에서 약 1조 2791억 원의 자금이 유출된 것과 대비되는 흐름이다.

수익률도 긍정적이다. 펀드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신한글로벌탄소중립솔루션펀드(H)’는 1년 수익률 105.18%를 기록하며 동일 유형인 해외주식형 펀드 평균 수익률 20.84%를 상회했다.

‘신한글로벌탄소중립솔루션펀드(H)’는 AI 인프라(반도체·데이터센터·전력망)와 에너지 전환(재생에너지·원전·전력설비) 등 구조적 성장 산업에 선별 투자하는 글로벌 주식형 펀드다. 탄소중립을 단순한 ESG 테마가 아닌 AI 시대의 에너지 인프라 확장 관점에서 접근하며 차별화된 투자 전략을 구축하고 있다.

주요 투자종목은 ▲삼성전자 ▲엔비디아 ▲SK하이닉스 ▲버티브홀딩스 ▲GE 버노바 ▲블룸에너지 ▲루멘텀 등으로, AI 반도체와 전력 인프라, 친환경 에너지 등 ‘AI + 에너지 전환’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신하은 기자

교보증권 로비 새단장… 디지털 공간 조성

고효율 LED 전광판 설치

교보증권은 본사 1층 로비를 새롭게 단장하고 방문객과 임직원을 위한 소통 중심의 공간으로 탈바꿈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리뉴얼은 단순한 공간 개선을 넘어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기능 강화와 친환경 요소 확대를 함께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로비 전면에는 대형 디지털 전광판을 새롭게 설치해 실시간 주식 시장과 주요 금융지수, 다양한 사내 소식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로비 조명을 고효율 LED로 교체해 에너지 절감과 공간 개선 효과를 높이는 한편, 식물 조경을 더해 자연 친화적인 휴식 공간으로서의 기능도 한층 강화했다.

교보증권 관계자는 “로비는 고객이



교보증권 임직원들이 새롭게 단장한 교보증권 본사 1층 로비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교보증권

회사를 처음 접하는 공간이자 브랜드 정체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접점”이라며 “이번 공간 개편을 통해 고객과 임직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따뜻하고 친근한 브랜드 이미지를 전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신하은 기자

한투증권 “신한카드로 발행어음 투자”

증권사 앱 설치 없이 거래 가능

한국투자증권은 신한카드와 제휴를 통해 카드 플랫폼 기반 발행어음 투자 서비스를 업계 최초로 출시하고, 총 1500억원 규모의 특판 상품을 선보인다고 5일 밝혔다. 신한카드는 증권과 카드 대표 사업자 간 협업이라는 점에서 고객 저변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서비스는 신한카드의 통합플랫폼 ‘신한 SOL페이’ 내 ‘자산’ 탭에서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상품을 소개한다. 고객은 판매사인 한국투자증권에서

운영하는 웹뷰(WebView) 방식을 통해 상품 조회·가입까지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다. 별도의 증권사 앱 설치 없이도 카드 플랫폼 내에서 투자상품 거래가 가능한 인앱(In App) 서비스라는 점이 특징이다.

앞서 인터넷은행과의 제휴를 통해 발행어음 투자 저변을 넓혀 온 한국투자증권은 이번에는 카드와 투자가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금융 서비스를 선보이며 고객 편의를 한층 높였다. 공휴일을 포함해 365일 24시간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며 고객이 원하는 시점에 언제든지 투자할 수 있는 환경도 구축했다.



서비스 출시를 기념한 특판 발행어음도 선착순 판매한다. 연 3.5% 수익률의 1년물과 연 3.3% 수익률의 6개월물(세전, '26.3.20) 총 1500억원 한도 소진 시 판매가 조기 종료될 예정이다. 발행어음은 초대형 투자은행(IB)이 자기신용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단기 투자 상품으로, 안정적인 신용도와 경쟁력 있는 금리를 바탕으로 단기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허정윤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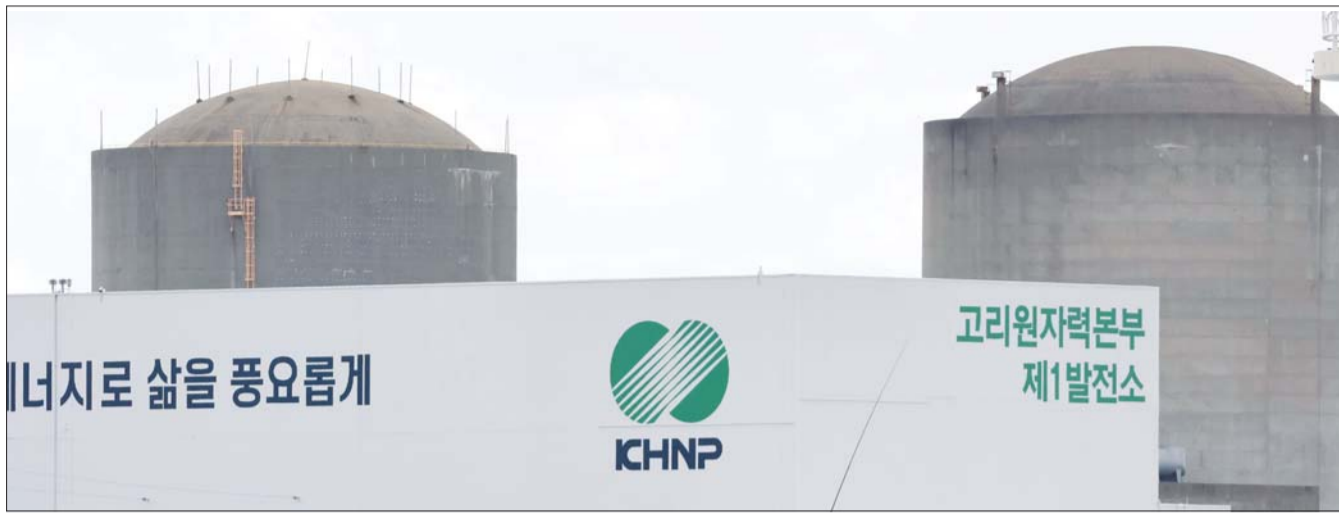
한수원, 고리2호기 계속운전 돌입... 원전10기 연장 추진

허가 만료 뒤 35개월 만에 재개
최신기술 적용해 안전성·성능 강화
에너지 안보·탄소중립 실현 기대
2030년까지 고리3·4호기 등 확대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의 고리 2호기가 약 3년에 걸친 계속운전 설비개선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국가 에너지 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다.

한수원은 고리2호기가 35개월간의 계속운전 설비개선 사업을 마치고 4일 본격적인 재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1983년 상업운전을 시작해 40년간 전력을 공급해온 고리2호기는 지난 2023년 4월 운전허가 기간이 만료되며 일시 정지된 바 있다.

한수원은 고리2호기의 안전한 계속운전을 위해 2022년 4월 규제기관에 안전



사진은 이날 부산 기장군의 한 마을에서 바라본 고리원전 2호기(왼쪽)와 영구 정지 8년 만인 지난 6월 해체가 결정된 고리원전 1호기(오른쪽) 모습. /뉴스시

성 평가서를 제출했다. 이후 3년 7개월간의 엄밀한 심사를 거쳐 지난해 11월 최종 승인을 획득했다.

발전소가 정지해 있던 기간 동안 한수원은 단순히 가동을 멈춘 것이 아니

라, 미래지향적인 안전 확보에 주력했다. 우선 최신허 기술을 적용한 설비 교체와 보강이 이뤄졌고, 규제기관의 정기검사를 통한 가동 적합성 최종 판정을 받았다. 또 장기 운영에 대비한 핵

심 부품 정밀 진단 등 계통 점검도 이뤄졌다.

중동 전쟁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번 고리2호기 재가동은 단순한 전력 공급

재개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김희천 한수원 사장은 "에너지 공급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안전에 기반한 원자력발전소의 계속운전은 국가 에너지 안보 확보에 중요한 수단"이라며 "고리2호기의 성공적인 계속운전을 시작으로 현재 추진 중인 원전 9기의 계속운전도 철저히 준비해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이를 통해 국가 경제와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이번 고리2호기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원전 10기 계속운전을 추진한다. 한수원은 고리 3,4호기 등 후속 9기의 원전도 규제기관의 안전성 심사와 성능 강화를 위한 설비개선 시행으로 더욱 안전한 계속운전을 추진할 방침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metro

‘신고의제’ 확대... 영세사업장 과태료 부담 줄였다

근로복지공단, 신고의제 확대 성과
신규가입 53% 별도 신고 없이 처리

근로복지공단이 국세청과 협업해 시행 중인 ‘신고의제’ 확대 제도가 영세사업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공단은 제도 확대 시행 1년 만에 전체 신규가입의 53%에 달하는 15만 6000건이 별도의 성립신고 없이 ‘신고의제’를 통해 가입됐다고 6일 밝혔다.

기존 제도하에서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산재보험 성립신고를 마쳐야 했다.

하지만 행정 인력이 부족한 영세·중소사업장의 경우, 이 의무를 알지 못해 신고를 누락했다가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산재 발생 시 보험급여 일부를 부담해야 하는 위험에 노출되곤 했다.

공단이 도입한 ‘신고의제’는 사업주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날, 고용·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함께 한 것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가운데)이 지난해 8월 19일 공단 본부(울산)에서 사내 혁신 아이디어 경진대회인 'PM콘서트(Process Modernization, 업무 처리절차의 최적화)'를 열고 행정서비스 개선에 이끈 우수 사례를 선정·시상했다. 이날 '신고의제' 제도 확대 시행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근로복지공단

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사업주는 번거로운 신고 절차를 건너뛸 수 있고, 신고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임업을 병행하게 된 건설업자 A씨는 전담 인력이 없어 신고 기한을 놓칠 뻔했으나, 확대된 신고의제 제도 덕분에 별도 절차 없이 기한 내 신고로 인정받

아 과태료 부담을 덜었다. A씨는 "인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장에 정말 큰 도움이 된다"며 만족감을 표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사업주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오고 있다. 사업장의 성립신고가 자동으로 처리됨에 따라,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처리 속도가 대폭 향상되었

기 때문이다.

경영컨설팅 업체 사업주 B씨는 근로자 C씨를 채용하고 자격취득 신고만 한 상태였다. 예전 같으면 공단의 보완 요청과 사업주의 추가 신고가 오가는 동안 처리가 지체됐겠지만, 이제는 공단이 사업장 확인 즉시 성립 처리를 완료해 C씨의 보험 자격을 신속히 승인할 수 있었다.

공단은 성립신고뿐 아니라 사업자등록 폐업 또는 변경 신고 시에도 고용·산재보험 소멸·변경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를 통해 사업주의 행정 부담을 추가로 줄이는 한편, 보험 관리의 정확성과 효율성도 함께 높였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행정기관 간 정보 공유를 통해 사업주의 부담과 보험 사각지대를 동시에 해소하는 선제적 행정서비스 개선이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고용노동부 공공기관 불합리 관행 익명 제보창구 개설

공공기관의 불합리한 관행에 대해 온라인으로 익명 제보할 수 있는 전용 상담 창구가 개설된다. 고용노동부는 5일 공공기관의 불공정 계약을 근절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오는 6일부터 '공공부문 불합리한 관행 상담센터'를 정식 개소한다고 밝혔다.

상담센터는 국민 누구나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운영된다.

상담 대상은 단기 계약을 반복하며 고용 불안을 야기하는 쪼개기 근로계약, 지속적인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채용을 회피하는 행위는 물론 차별 절차 등 공공부문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관행 전반을 포함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경북·전남 식품산업 혁신거점 육성 본격화

농림축산식품부가 '2026년 식품융합 클러스터' 시범사업 대상으로 경상북도와 전라남도를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 식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국가정책 사업으로, 지난 2월 공모를 통해 총 6개 광역지방정부가 신청한 바 있다. 이후 서면·현장·발표 평가를 거쳐 최종 2개 지역이 선정됐다.

경북도는 마, 생강, 험프씨드 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해 고령친화식품 등 건강기능식품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공유공장 구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남도는 '전라남도 식품산업 육성 추진 전략'을 기반으로 친환경 농생명 자원을 활용한 식품산업 생태계 구축과 함께 연구개발(R&D)·실증·사업화·수출이 연계된 혁신거점 조성 구상이 강점으로 인정받았다.

/세종=김연세 기자

해운항만 스타트업 플랫폼 '1876 BUSAN' 본격화

해양진흥공사·부산항만공사 협력
부산테크노파크 운영기관 선정
입주기업 단계별 육성체계 구축

한국해양진흥공사(사장 안병길)가 부산항만공사(사장 송상근)·부산테크노파크(원장 김형균)와 해운항만 기술창업 지원 플랫폼인 '1876 BUSAN' 위탁 협약식 및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5일 공사에 따르면 이 협약은 해운항만 스타트업의 체계적 육성에 목적이 둔다.

지난달 31일 부산항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협약식에서는 향후 1876 BUSAN의 운영 방안 및 입주기업 지원 이

행안(로드맵) 등에 대한 설명·논의가 진행됐다.

해양진흥공사는 지난 2022년부터 스마트 항만의 국산화와 스타트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부산광역시, 부산항만공사,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협력해 창업 지원 플랫폼 1876 BUSAN을 운영하고 있다.

공사는 부산항만공사와 함께 플랫폼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월 업무수탁 공모를 진행했다. 또 중소 기술기업 발굴 및 육성 역량을 갖춘 부산테크노파크를 최종 선정해 해운항만 창업 생태계 활성화 추진에 나

섰다.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부산테크노파크는 1992년 설립한 이후 지역 기술 혁신을 주도해 온 기관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그간 축적한 기업 육성 노하우와 산업 네트워크를 1876 BUSAN 운영에 적극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입주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는 '셋업(set-up), 빌드업(build-up), 스케일업(scale-up)' 체계를 확립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초기 창업부터 세계 시장 진출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부산항의 인프라를 활용한 실증(테스크베드) 기회를 제공해 스타트업



지난달 31일 개최된 '1876 BUSAN' 위탁 협약식 및 사업설명회. /해진공

이 개발한 신기술이 현장에 적용되도록 돕고, 이를 통해 확보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술의 완성도를 높이는 등 효과 창출에 주력할 예정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63억뷰 유튜브 스타! 국민 여동생의 컴백!!
 역대 인기송, 올동송, 친구들 총 출동!!



▲예매하기



영동바라

공순이

슈퍼콘서트

★뮤지컬★

©YOUNG TOYS

2026.5.1(금)~5.10(일)
 성균관대학교 대극장 새천년홀

광주, AI 실증도시 본격화... 일자리 위협 속 신직종 등장

광주 전역 AI 실증 플랫폼 추진
자율주행·의료·행정 실증 확대
기술 확산에 일자리 축소 우려
반복업무·운전직 변화 본격화
AI윤리·데이터 신직종 부상



11일 오후 광주 북구 오룡동 광주인공지능집적단지에서 설치된 드라이빙 시뮬레이터에서 미래차 자율주행 등 인공지능(AI) 기반 차량 실증이 진행되고 있다. /뉴스스

‘국가AI데이터센터’ ‘국가신경망처리장치(NPU)컴퓨팅센터 유치 추진’ ‘미래차 모빌리티 자율주행 실증’ 등 광주가 인공지능(AI) 무대로 주목 받고 있다.

동시에 광주의 인공지능 실증은 미래 노동시장에서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는 기술의 발전,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협력관계가 형성될지를 가능하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등 관계 기관이 광주 도심 전역을 인공지능 기술 상시 실증·검증하는 무대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기업이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해 기

존의 공정 방식을 전환(AX)할 수 있도록 데이터·컴퓨팅·실증이 연계된 ‘도시 전역 상시 실증 플랫폼’ 구축 방향, 인공지능 데이터 수집·가공·활용 체계, 국가AI데이터센터·NPU컴퓨팅 기반 시설 활용방안 등을 모색했다.

이어 인공지능 실증·상용화 파급력이 큰 교통안전, 의료건강, 공공행정, 생활환경, 문화감성 등 5대 생활밀착형 도시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현장 실증 과정에서 도출되는 제도 개선 과제

를 단계적으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가 광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율주행 실증도시’ ‘AI 모빌리티 국가시험도시’와 연계해 규제 특화방향을 구축하고 통합적인 ‘규제프리 AI 실증도시’ 그림을 완성한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이는 광주 도심 곳곳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인간의 능력을 대체할 수 있는지를 실험하는 것으로 성공여부에 따라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현대차의 로봇 계열사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국제전자박람회(CES 2026)를 통해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공개했다.

아틀라스는 50kg을 들 수 있고 사람처럼 움직이는 모습에 제조 현장 투입이 가능한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2028년부터 현대차그룹 메타플랫폼 아메리카(HMGMA)에 우선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아틀라스는 장기간 사용을 가정하면 인건비 대비 저렴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대차 노조는 국내 공장 도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부터 광주 도심에서 진행되는 자율주행(로봇) 차량 실증도 인간의 운전능력을 인공지능 기술이 도심의 다양한 도로환경에 맞게 대처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광주=양수영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metro

지역 이모저모

경북도

신규 상품개발 지원기업 모집

경북도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제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규 상품개발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2026년 K-통합 마케팅 생태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상품 기획부터 디자인, 마케팅까지 전 과정을 지원해 기업의 시장 진입과 안착을 돕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원 대상은 포항,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상주, 문경, 경산, 의성, 청도, 성주, 칠곡, 봉화 등 도내 13개 시·군에 소재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2025년 기준 매출액 120억 원 이하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

김해시

‘댕댕파크’ 반려동물 공원 조성

김해시가 반려동물과 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테마공원을 열고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에 나섰다. 시는 지난 3일 가야테마파크 동측 어방동 984-2번지 일원에서 ‘김해댕댕파크’ 개장식을 개최했다. 총사업비 52억원을 투입해 1만 5412㎡ 부지에 조성된 이 공원은 반려견 놀이터와 산책로, 휴게 공간, 관리 시설, 주차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췄다. 개장식은 김해시립합창단 공연과 반려견 프리시비 퍼포먼스 등 식전 프로그램으로 시작으로 기념식과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김해(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포항시

청년 주도 정책학교 운영

포항시가 청년 주도의 정책 발굴과 참여 확대를 위해 ‘2026년 포항 청년정책학교’ 참여자를 모집한다. 시는 오는 4월 29일까지 신청을 받아 청년이 직접 정책 아이디어를 기획하고 구체화하는 과정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청년 참여 기반을 넓히고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모집 대상은 포항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19세부터 39세까지 청년 30명으로 선착순 선발한다. 교육은 오는 30일 킥오프 워크숍을 시작으로 6월 4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총 6회에 걸쳐 포항청춘센터에서 진행된다.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영양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

영양군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록 신청을 오는 5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분형 공익직불제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지에서 실제 농업을 경영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두 가지 유형으로 지급된다. 소농직불금은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한 농가에 농가당 130만 원이 지급되며, 면적직불금은 농지의 위치와 면적 구간에 따라 차등 단가가 적용된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

부산교육청, 장애학생 맞춤형 직업교육

직업체험·데이터라벨러 과정 운영 유관기관 연계 현장중심 직무훈련

부산시교육청이 장애 학생의 실질적 취업 역량 강화를 목표로 유관 기관과 손잡고 맞춤형 직업교육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부산발달장애인훈련센터 직업 체험 프로그램 ▲장애 학생 데이터라벨러 양성 프로그램 ▲장애 학생 기관 연계형 직업교육 프로그램 등 3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단순 체험에 그치지 않고 현장 중심의 직무 훈련을 통해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발달장애인훈련센터와 연계한 ‘직업 체험 프로그램’은 요양 보호·사무 보조·서비스·

제조 등 10개 직종 직업 체험관에서 운영된다. ‘데이터라벨러 양성 프로그램’은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디지털 직무 수요를 반영해 기존 오후 3시간에서 30시간으로 교육 시간을 확대했다. 특수학교 고등학교·전공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AI 학습용 데이터의 정제·분류·표기 등 실무 중심의 이론과 실습을 체계적으로 병행한다.

‘기관 연계형 직업교육 프로그램’은 지역 사회 장애인복지관 등 21개 유관 기관과 협력해 고등학교 특수학급 학생들에게 직무 기능 및 취업 역량 교육을 제공한다. 졸업을 앞둔 3학년 학생을 우선 선발해 공공기관·일반 사업장 현장 실습을 거쳐 실제 취업까지 연계 되도록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경북, 독도 현장중심 관리정책 본격 추진

2030년까지 4339억 투입 사업 추진

경북도는 정부가 발표한 ‘제5차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과 2026년 시행계획에 맞춰 독도의 실질적 관리주체로서 현장 중심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2030년까지 총 4,339억 원을 투입해 과학조사와 연구협력 확대, 안전 관리와 편의성 강화, 생태계 보전, 교육·홍보 활성화, 미래 역량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올해 시행계획을 통해 65개 사업, 약 1,42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경북도는 이에 연계해 실행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도는 울릉공항과 연계한 접근성 개선을 비롯해 주민 정주 여건과 안전시설 보완, 해양환경 보전 및 정화 체계 강화, 독도 교육과 홍보 확대 등을 중심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독도를 해양주권의 상징이자 동해 거점으로 보고,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경북=김준한 기자

해남군, 국가AI컴퓨팅센터 건립 본격화

2028년 4월 시범운영·10월 준공 목표

해남군에 들어서는 국가AI컴퓨팅센터의 건축허가가 지난 3일 접수되어 건립에 본격적인 속도를 내고 있다. 삼성 SDS 컨소시엄은 3일 국가AI컴퓨팅센터 건립 건축허가를 해남군에 접수했다.

위치는 해남군 솔라시도 기업도시로, 1만 5,000평 부지 연면적 1만평 규모, 지진과 화재에 강한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설계되었으며, 지상 2층의 전산동과 운영동, 부속동이 들어선다.

군은 4월 중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하고, 전 분야 도서 착수 및 구조 계산 등 후속 공정을 이어갈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까지 실시설계 및 착공계를 마무리하고, 3분기에는 파일 및 토공사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후 28개월간의 공사



국가 AI컴퓨팅센터 조감도. /해남군

기간을 거쳐 2028년 4월 시범운영, 10월 말 최종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군은 건축허가에 앞서 필수적인 지구단위계획 및 기업도시 개발계획 변경 절차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3일 건축 인·허가 접수가 차질없이 이어지도록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삼성 SDS 컨소시엄 측과 긴밀한 사전 협의를 이어왔다.

/해남(전남)=이태호 기자 eogh7505@



KTR 구미 대경본부 설립 협약.

구미, 배터리 시험인증 거점으로 뜬다

KTR 대구경북본부 7월 산단에 설립

경북 구미에 2차전지 산업 생태계를 바꿀 국내 최대 배터리 시험인증기관이 들어선다.

지난 4일 구미시에 따르면 시청 회의실에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KTR은 1969년 설립된 국가기술표준원 산하 비영리 법인이다.

시험평가, 국내외 인증 등을 제공하는 국내 최대 분야 시험인증기관이다.

연간 3만여 기업과 기관에 47만건의 시험평가 및 국내외 인증 업무를 수행

한다.

이번 협약은 KTR 대구경북본부를 구미에 설립하고 지역 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본부는 7월 구미1산업단지 내에 들어서며 약 50여명이 근무할 예정이다. 신설되는 대구경북본부는 금속소재부품, 재사용 배터리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시험 접수부터 시험·성적서 발급, 인증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 연구개발(R&D) 과제 수행과 연구기반 활용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구미(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외식업계, '나들이객·직관족' 주목... 전용메뉴 등 점점 확대

롯데GRS 사직구장 '스탠브루' 오픈
더본코리아 야구장 전용메뉴 선봬
세븐일레븐 한달간 즉석식품 할인

완연한 봄 날씨와 함께 프로야구 시즌이 개막하면서, 외식·편의점 업계가 '나들이 수요'와 '직관 수요'를 동시에 겨냥한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야구장과 봄나들이 장소가 단순한 여가 공간을 넘어 '먹거리 소비 공간'으로 주목받으면서 업계는 공간 특성에 맞춘 전용 메뉴와 할인 프로모션으로 소비자 접점 확대에 나섰다.

외식 프랜차이즈들은 야구장을 새로운 상권으로 보고 입점을 확대하고 있다.

SSG 랜더스의 홈구장인 인천SSG랜더스필드에는 피자엔컴퍼니의 반올림피자가 이번 시즌 매장을 열었다. 2만3000석 규모 구장 4층에 들어선 테이크아웃 전용 매장으로, 오픈형 카운터를 통해 빠른 주문과 수령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시그니처 메뉴 '고구마올림'을 비롯해 스파게티, 미트볼 등 경기 관람 중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메뉴를 판매한다. 반올림피자는 창원NC파크, 대전한화생명볼파크에 이어 전국 3개 야구장에서



스탠브루 사직야구장점 내부 전경. /롯데GRS

매장을 운영하게 됐다.

롯데GRS는 부산 사직야구장에 브루잉 커피 전문 브랜드 스탠브루 매장을 열었다. 1L 빅사이즈 커피와 자동 브루잉 시스템을 도입해 경기일 피크타임에도 신속한 제공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롯데 다이얼스 유니폼 착용, 로고 컵홀더 증정 등 현장 맞춤형 마케팅도 병행한다.

더본코리아는 야구장 내에서 브랜드 다각화 전략을 펼치고 있다. 대전한화생명볼파크에서 새마을식당, 역전우동, 백스비어, 한신포차, 연돈볼카츠, 리춘시장, 백보이피자, 고투윅 등 8개 브랜드를

운영 중이며,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는 역전우동을 운영한다. 새마을식당은 '승리의 바베큐 플레이트', 역전우동은 '컵 냉우동' 등 한 손에 들고 먹을 수 있는 야구장 전용 메뉴를 선보였다.

업계에서는 최근 야구장을 '계절형 특수상권'이 아닌 '고정 유동상권'으로 보기 시작했다. 한 경기당 2만 명이 3~4시간 체류하는 구조로 일반상권 대비 체류 시간이 압도적으로 길고 음식 소비가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환경이기 때문이다. 특히 경기 중 이동이 제한되는 특성상 '자리에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메뉴'가 높은 선호를 보이며 이는 외식



세븐일레븐은 4월 한 달간 즉석치킨, 피자, 스무디, 세븐카페 등 40여 종 즉석식품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세븐일레븐

브랜드들이 야구장 전용 메뉴를 개발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실제로 컵에 담긴 우동, 플레이트형 고기 메뉴, 조각 피자, 핑거푸드 도시락 등 경기 흐름이나 이동 동선을 방해하지 않는 형태로 메뉴가 재구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편의점 업계 역시 즉석식품과 도시락을 앞세운 프로모션에 집중하고 있다. 야구장이나 공원, 캠핑장 등 야외활동 전 '간편하게 준비해 가는 먹거리' 수요가 늘면서, 즉석식품과 도시락이 사실상 '외식의 대체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븐일레븐은 4월 한 달간 즉석치킨, 피자, 스무디, 세븐카페 등 40여 종 즉석식품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올해 1분기 즉석식품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했다. 오프라인과 앱 '당일픽업'을 연계한 치킨 할인, '2분 피자' 구매 시 음료 증정, 즉석 스무디와 세븐카페 할인 등 나들이 간식 수요를 겨냥한 혜택을 강화했다.

GS25는 4월 '이달의 도시락 피크닉 편'을 출시했다. 무스비, 볼카츠초치, 미니돈까스 등 핑거푸드 중심 10종 반찬으로 구성했으며, NH농협카드 결제 시 50% QR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달의 도시락' 시리즈 흥행에 힘입어 GS25 도시락 매출은 올해 1~3월 매출 20% 안팎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프로야구 1200만 관중 시대와 봄철 야외활동 증가가 맞물리며 '밖에서 즐기는 한 끼'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며 "야구장과 나들이 공간이 새로운 F&B 소비 무대로 떠오르면서 공간 맞춤형 메뉴와 가성비 프로모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CJ푸드빌, 베이커리·외식사업 호조... '1조 클럽' 복귀

뚜레쥬르 중심 해외 사업 성장세
빽스 매니아 회원 전년 대비 22% ↑

CJ푸드빌이 2025년 연결 기준 매출 1조208억원을 기록하며 2018년 이후 7년 만에 '1조 클럽'에 복귀했다. 전년 대비 약 12%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베이커리 사업과 국내 외식 사업이 동반 성장한 결과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501억원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다. 미국 공장 가동 준비, 현지 인력 확충 등 글로벌 인프라 투자 확대와 국내 원자재 수급 비용 상승이 수익성에 영향을 미쳤다.

베이커리 브랜드 '뚜레쥬르'를 중심으로 한 해외 사업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미국·인도네시아·베트남 법인을 합친 해외 매출은 2782억원으로 전년 대비 31% 증가했다. 이 가운데 미국 법인 매출은 1946억원으로 42% 성장했으며, 2018년 이후 8년 연속 흑자를 이어가고 있다.

CJ푸드빌은 지난해 말 미국 조지아주 게인스빌에 냉동생지와 케이크 등을 연간 최대 1억개 생산할 수 있는 현지 공장을 완공했다. 미국을 글로벌 핵심 거점으로 삼아 출점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아시아 시장에서도 성장세가 이어졌다. 인도네시아 법인은 537억원, 베트남

법인은 298억원 매출을 기록하며 각각 10%, 18% 증가했다. 몽골·싱가포르·말레이시아 등 마스터프랜차이즈 형태로 진출한 국가에서도 안정적인 성장 흐름을 보였다.

국내 외식 사업 역시 전년 대비 약 12% 성장했다. 프리미엄 패밀리레스토랑 '빽스'는 특화 매장 전략과 연말 성수기 효과로 실적을 견인했다. 전국 35개 매장을 운영하며 프라이빗 룸, 기업 멤버십 등 상권 맞춤형 전략으로 고객 충성도를 높였다. '빽스 매니아' 회원 수는 전년 대비 22% 늘었고, 최우수 등급 '매니아 퍼스트' 회원은 2023년 대비 약 3배

증가했다. '빽스 프렌즈' 회원 수도 33% 확대됐다.

지난해 말 론칭한 이탈리아 비스트로 '올리페페'도 빠르게 시장에 안착했다. 이탈리아 거리 콘셉트와 대형 피자 화덕을 앞세워 오픈 이후 현재까지 매일 30분~1시간가량 대기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

CJ푸드빌은 빽스와 올리페페를 중심으로 외식 사업을 안정적인 캐시카우로 육성하는 동시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베이커리 사업 확장을 지속해 성장세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신원선 기자

롯데백화점 '리조이스' 10주년 캠페인

롯데백화점이 사회공헌 캠페인 '리조이스(RE:JOICE)' 시행 10주년을 맞아 기념 캠페인을 진행한다.

'리조이스'는 모든 이들의 꿈과 도전을 응원하는 롯데백화점의 대표 사회공헌 활동으로, 2017년 첫 선을 보인 이후 현재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왔다.

올해 롯데백화점은 리조이스 10주년을 맞아 업계 최초로 '임팩트 리포트'를 발간한다. 이번 리포트에는 정신건강과 마음돌봄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의제로 확장해온 롯데백화점의 지난 10년간의 여정을 담았다.

'마음돌봄'을 주제로 한 포럼도 개최한다. 'Voice by REJOICE, 리조이스 10주년 기념 마음돌봄포럼'이라는 이름의 이번 포럼에는 정신건강과 마음돌봄의 중요성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신원선 기자

줄서서 먹는 뿌링클... bhc, 북미시장 성과

뉴저지 포트리점 매출 급증

다이나믹그룹의 치킨 브랜드 '별하나 치킨' bhc가 지난 2월 말 미국 뉴저지주에 오픈한 6호점 '뉴저지 포트리점(Fort Lee)'이 오픈 이후 기존 미국 가맹점들의 평균 매출 대비 280.4% 높은 매출을 달성하며 북미 시장 진출 이래 가장 돋보이는 성과를 내고 있다.

미국 내 네 번째 가맹점이기도 한 뉴저지 포트리점은 정식 오픈 전 진행된 소프트 오픈 당일부터 매장 내외부로 현지 고객들의 긴 대기 행렬이 이어졌다. 준비된 치킨 재료가 전량 소진되어 조기 마감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치킨 부위 중에서는 미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윙(Wing)'이 판매 1위를 기록했으며 메뉴 기준으로는 bhc의 대표 메



미국 6호점 '뉴저지 포트리점' 매장 전경. /bhc

뉴인 '뿌링클'이 압도적인 1위에 올라 현지화와 K-푸드의 정체성을 동시에 잡았다는 평가다. 아울러 시그니처 사이드 메뉴인 '치즈볼' 역시 높은 판매 비중을 기록하며 전체 매출 성장에 크게 힘을 보태고 있다.

/신원선 기자

신세계백화점, 간편결제 혜택 강화

라인페이와 대규모 프로모션

신세계백화점이 빠르게 늘고 있는 대만 관광객 수요를 겨냥해 현지 1위 간편결제 서비스 '라인페이(LINE Pay)'와 손잡고 대규모 프로모션을 선보인다. 오는 4월 30일까지 전 점포에서 라인페이 QR로 결제 시 최대 30%를 '라인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프로모션은 결제 금액의 10%를 기본 적립해주고, 비자(VISA) 카드로 결제할 경우 추가로 12%를 더 적립해준다. 여기에 지정 카드인 CTBC 라인페이 카드, UBOT 라이디안(Lai Dian) 카드, 시노팩(SinoPac) DAWAY 카드로 결제 시 8%가 추가 적립돼 최대 3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인별 월 적립 한도(약 12만7840원) 내에서는 혜택이

중복 적용되며, 적립된 라인 포인트는 대만 현지에서 사용 가능하다.

신세계백화점은 여기에 자체 쇼핑 혜택도 더했다. 패션, 잡화, 화장품 장르에서 단일 브랜드 기준 10만원 이상 구매 시 1만원 즉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식음료(F&B) 장르에서는 3만원 이상 구매 시 5000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멤버스바 음료 쿠폰 1잔도 함께 제공해 쇼핑과 휴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신세계백화점은 이번 협업을 통해 간편결제 기반의 쇼핑 환경과 고객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결합해 외국인 고객의 체류 시간을 늘리고, 실질적인 매출 확대까지 이어간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LG유니참 '쏘피 레굴러' 신제품

LG유니참이 기본에 충실한 실속형 생리대 '쏘피 레굴러(사진)'를 새롭게 선보인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보편적 월경권 보장과 생리대 가격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정책에 맞춘 합리적 가격의 생리대다.

쏘피 레굴러는 중형과 대형 2종으로 출시되며 자사 프리미엄 제품 대비 약 50% 수준의 합리적인 가격으로 유통사에 공급된다. /이청하 기자 mllee236@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 '청신호'... 복수 입찰로 반전

2곳 인수의향... 유찰 우려 벗어
퀵커머스 물류 기능, 강점 꼽혀
희망가-시장 가격 차이 '변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앞에서 모델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홈플러스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기업형 슈퍼마켓(SSM) 사업부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에서 일단 한 고비를 넘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찰 가능성까지 거론됐던 상황에서 복수의 기업이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한 데 이어, 공개경쟁입찰 방식의 본입찰 절차가 공식화되면서 매각 성사 가능성에 다시 무게가 실리고 있다.

서울회생법원과 매각주관사 삼일회계법인은 지난 3일 공고를 통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을 공식화했다. 매각 방식은 자산 또는 영업양수도이며, 공개경쟁입찰로 진행된다. 인수입찰서 접수는 2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다.

앞서 인수의향서 제출 마감 결과, 두 곳의 기업이 LOI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한 곳은 커피 프랜차이즈 메가MGC커피 운영사인 엠지씨글로벌이다. 업계에서는 롯데·GS 등 기

존 SSM 강자들의 참여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이들이 선을 그으면서 한때 유찰 우려도 제기됐다. 그러나 복수 참여가 확인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특히 이번 매각이 공개경쟁입찰로 진행되면서 기존 LOI 제출 기업 외에도 추가 입찰 참여가 가능해졌다. 잠재 인수 후보들은 6일부터 20일까지 인수의향서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 통상 M&A 과정에서 LOI를 생략하고 본입찰에 바

로 참여하는 사례도 있는 만큼 최종 입찰자 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엠지씨글로벌의 참여는 시장의 관심을 끌고 있다. 엠지씨글로벌은 현금 동원 가능성을 언급하며 외연 확장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전해진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전국 293개 점포 가운데 223개 점포가 퀵커머스 물류 기능을 갖추고 있어, 오프라인 점포망과 도심 물류 거점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커피 프랜차이즈와의 시너지뿐 아니라 도심 라스트마일 거점으로의 활용 가능성도 인수 매력 요인으로 평가된다.

다만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다. 매각은 우선협상자 선정 이후 실사, 본계약 체결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한다. 무엇보다 가격 눈높이 차가 변수다. 홈플러스측의 희망가는 30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적정 가격을 1500억원 안팎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업계에서는 SSM 업황 자체에 대한 회의론도 여전하다. 전자상거래 성장으로 오프라인 유통의 존재감이 약화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요 유통기업 26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유통매출에서 SSM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5년 기준 2.2%에 그쳤다. 2021년(2.7%) 대비 0.5%포인트 줄어든 수치다.

익스프레스 매각이 성공하더라도 홈플러스가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알짜인 SSM을 떼어내고 남은 대형마트 부문은 수익성이 더 낮다. 이커머스 강세 속에서 오프라인 마트의 경쟁력을 어떻게 회복할지가 관건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법정관리 기간 장기화로 약화된 협력사들과의 신뢰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며 "매각 대금으로 미지급금을 청산하더라도, 떠나간 우수 협력사들을 다시 불러들여 상품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이번 매각은 홈플러스회생의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통매각에 실패한 이후 분할 매각으로 전환한 첫 시험대이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복수의 업체가 LOI를 제출했다는 점은 긍정적 신호지만, 실제 인수 여력과 사업 시너지 여부가 관건"이라며 "본입찰 참여 기업 면면에 따라 매각 성과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회생법원은 5월4일까지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을 연장해 둔 상태다. 익스프레스 매각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법원이 언급했던 만큼,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연장할 가능성도 언급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metro

SK바이오팜, CNS 신약 파이프라인 확대

서울바이오허브와 오픈 이노베이션 중추신경계 분야 유망 스타트업 2곳 노보렉스·쓰리브룩스테라퓨틱스 선정



'2026 서울바이오허브-SK바이오팜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 협약식'에서 (왼쪽부터) 김현우 서울바이오허브 센터장, 김성영 쓰리브룩스테라퓨틱스 대표, 서울시 강해라 첨단산업과장, 손우성 노보렉스 대표, SK바이오팜 황선관 R&D부부장 등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SK바이오팜

SK바이오팜은 바이오·의료 스타트업 플랫폼 서울바이오허브와 함께 출범한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중추신경계(CNS) 분야 유망 스타트업 2개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SK바이오팜은 노보렉스, 쓰리브룩스테라퓨틱스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노보렉스는 인공지능(AI) 기반 구조 분석 기술을 활용해 파킨슨병 발병에 관여하는 단백질인 'LRRK2'를 표적, 저해하는 기전을 규명하고 있다. SK바이오팜은 노보렉스의 정밀 타겟 결합 기술에 자사의 글로벌 임상 설계 노하우를 더해, 전임상 단계에서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차세대 정밀 치료제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쓰리브룩스테라퓨틱스는 자가포식

활성화 기전을 통해 세포 내 노폐물을 제거함으로써 알츠하이머 등 퇴행성 뇌 질환의 근본 원인에 접근한다. SK바이오팜이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신경면역 및 뇌 질환 분야에서 기존 약물과 차별화된 시너지를 창출하며 혁신적인 치료 솔루션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기업들은 향후 1년간 SK바이오팜 연구진으로부터 기술 실증(PoC), 임상 진입을 위한 R&D 로드맵 수립,

글로벌 규제 대응 전략 등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연구 자문을 받는다.

이동훈 SK바이오팜 사장은 "신경면역 등 중추신경계(CNS) 내 미개척 영역의 유망 기술을 조기에 검증하고 당사의 성공 DNA를 이식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입증할 차세대 혁신 신약 파이프라인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지씨씨엘, '비스메데리'와 백신 개발 협력

유럽-아시아 잇는 협업 기반 강화



조관구 지씨씨엘 대표(왼쪽)와 비스메데리 총책임자 알레산드로 마네티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지씨씨엘

글로벌 임상시험 검체분석 기관 지씨씨엘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월드 백신 콘그레스 2026(WVC 2026)' 현장에서 유럽 비스메데리 유한회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비스메데리는 바이오분석 전문기업으로 분석법 개발, 면역원성 평가 및 관련 서비스 등을 통해 주로 백신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양사는 글로벌 백신 개발 및 임상시험 시장에서 파트너십을 다진다는 방침이다. 양사가 축적한 분석 전문성과 지역적 강점을 바탕으로, 유럽과 아시아·태평양(APAC)을 잇는 협업 기반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공동 발굴한다.

특히 양사는 최첨단 BL2~3급 연구 시설과 백신·감염병 분석 역량을 연계해 신종 감염병, 포스트 팬데믹 등에 대응 가능한 글로벌 백신 개발 프로젝트 지원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고위험 병원체 기반 백신 후보물질

연구를 포함해 다양한 개발 단계에서 가능성을 모색한다. 임상 인프라, 규제 과학 등과 관련해서도 협업한다.

공동 마케팅 등을 추진해 글로벌 백신 개발 고객에게는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임상시험 분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비스메데리 총책임자(CDO)인 알레산드로 마네티는 "지씨씨엘과 함께 다양한 시장에서 협력하며 백신 개발 프로젝트 지원의 시너지를 확대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기억력·건망증 개선 '기어케어정' 출시

광동제약, 동의보감 처방 재해석

광동제약은 한방 기억력감퇴 개선제 '기어케어정(사진)'을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기어케어정은 동의보감에 수록된 '장원환(壯元丸)' 처방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개발된 기억력감퇴 개선제다. 건망증과 기억력 개선뿐만 아니라 신경안정 효능까지 동시에 갖추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제품은 '총명탕'의 주요 구성 성분으로 알려진 원지(원지강제), 석창포, 복신을 비롯해 용안육, 지황(지황주세), 현삼, 인삼, 당귀(당귀주세), 산조인(산조인초), 맥문동, 백자인(백자인거유)까지 총 11가지 한방 복합 성분을 함유했다. 특히 약재 중 5종(원지강제, 지황주세, 당귀주세, 산조인초, 백자인거유)은 약효를 높이거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포제법'으로 제조되었다.

장원환은 동의보감 내경편 신문(神



門) 중 건망(健忘)의 대표처방 중 하나다. '이 약을 먹으면 하루에 천 마디 말을 외울 수 있고 가슴에 만권의 책을 간직할 수 있다'고 기록되며 선비들이 장원급제를 위해 복용한 보약으로 전해진다. 장원환 처방을 기반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제품은 현 기준 기어케어정이 유일하다. /이세경 기자

'에이피 선세럼' 자외선 차단부터 항산화까지

아모레퍼시픽 '에이피 뷰티' 신제품 얇게 밀착돼 베이스 대응 활용 가능

정돈하며 자연스럽게 밝혀 준다. 또 항산화 성분을 포함한 스킨케어 성분을 75% 이상 함유한다.

아모레퍼시픽은 하이엔드 스킨케어 브랜드 에이피 뷰티에서 '에이오 트리플 디펜스 에어리 톤업 선 세럼'을 새롭게 출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자외선 차단 기능부터 항산화 관리, 톤업 효과까지 갖췄다. 에이피 뷰티의 톤-리플렉터 기술이 적용돼, 노화로 인해 칙칙한 피부 톤과 결을

이와 함께 수분감 있는 선 세럼 제형을 처방한 것도 특징이다. 피부에 얇고 고르게 밀착되며 여러 번 덧발라도 뭉침이 없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메이크업 베이스 대응으로 활용 가능해 공기처럼 가벼운 피부 표현을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청하 기자 mlee236@

대한민국 가요 1세대 원조스타 리싸이틀



대전역 앞 아카데미하우스에서 "대한민국 1세대 원로가수 리싸이틀"이
2026년 4월 7일(화요일)부터 매일 원로스타들의 공연으로 펼쳐집니다.

대한민국 1세대 원조스타 리싸이틀



고향 아줌마
이정표 없는 거리
고향이 좋아

매주 금요일 김상진



대머리 총각
코스모스 피어있는 길
노란샤쓰 입은 사나이

매주 월요일
김상희



나는 행복합니다
이거야 정말
장미빛 스카프

매주 화요일 윤항기



철없는 아내
청춘
낙엽따라 가버린 사랑

매주 목요일
차도균



아버지의 대를 잇는 가수
차승민



매주 토요일 현 당



배호 가요제
대상

매주 수요일
이 호 / 이명주



사회
탤런트 이경영



마술공연



여행사 및 단체관람
문의 1544-3235



풀무원, 제81회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

풀무원은 지난 3일 제81회 식목일을 기념해 풀무원아카데미 주최로 충주시 살미면 설운리 소재 국유지(면적 1.4ha)에서 중부지방산림청과 함께 나무심기 행사를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참석자들은 나무심기 방법에 대한 사전 교육을 받은 뒤 쉬나무 4200본을 식재하며 숲의 가치와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풀무원



BYD-인천소방학교, 전기차 사고 대응 교육

BYD코리아가 인천소방학교의 요청으로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 대상 전기차 사고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을 실시했다. 5일 BYD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3일 진행된 이번 교육은 전기차 교통사고·화재·침수 등 다양한 현장에서 구조대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신속·정확한 구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기획되었다. /BYD



SKT-유한킴벌리, 안동 산불 피해지역 생태계 복구

SK텔레콤은 유한킴벌리와 함께 지난 4일 안동시 풍천면 일대에서 '산불 피해지역 평화의숲 조성'을 위한 나무심기를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풍천면은 지난해 3월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생태계 복구가 절실한 지역이다. 행사에는 SKT와 유한킴벌리 임직원·가족 100여 명이 참가했다. /SKT



신한라이프, '소비자보호 실천 선편식' 열어

신한라이프는 지난 2일 서울 중구 소재 신한타워에서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약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비자보호 실천 선편식'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천상영 사장(앞줄 오른쪽 네번째)과 안철경 전 보험연구원(다섯 번째)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라이프



우리銀-두산그룹, 국가 미래전략산업 생태계 구축

우리은행은 두산그룹과 '국가 미래전략산업 생태계 구축 및 성장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3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정진완 우리은행장(오른쪽)과 김민철 두산 대표이사(왼쪽)를 비롯한 양사 주요 경영진이 참석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시설투자 ▲수출입 금융 ▲해외투자 ▲협력업체 상생금융 지원 등 생산적 금융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한다. /우리은행

김승연 회장 “새로운 100년 이끌 리더로 성장하길”

〈한화그룹〉

**북일고 개교 50주년 기념행사 참석
설립자 현암 김종희 회장 동상 참배
재학생과 50년 발자취 되돌아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북일고 개교 5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국가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성장한 북일학원의 새로운 100년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5일 한화그룹에 따르면 김승연 회장은 지난 4일 충청남도 천안 북일고 개교 5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김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현암께서 만들고 키우신 그 숭고한 ‘불꽃’이 지금도 뜨겁게 타오르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지난 50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선배들이 이룬 북일이라는 거인의 어깨 위에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며 미래를 이끌어 나갈 리더로 성장해



김승연 회장이 4일 북일고 개교 5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한화

줄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북일학원 설립자인 현암 김종희 회장의 동상을 찾아 참배한 뒤 북일고 개교 50주년 기념 방명록에 “국가 인재양성의 뜻을 이어온 50주년을 기념하며 배움과 성장의 열정이 가득한 북일 100년의 미래를 만들자”고 적었다. 이어 재학생 및 교직원

들과 함께 북일고의 50년 발자취를 담은 기록 영상을 시청했다.

김 회장은 1981년부터 2014년까지 북일학원 제2대 이사장을 맡아 북일고와 북일여고가 명문 사학으로 자리 잡는 기반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북일학원 설립자인 김종희 회장은 1976년 ‘학교 교육은 국가 백년대계

의 근본적 초석이 된다’는 뜻 아래 무제한 장학금을 기부해 북일고를 설립했다. 어린 시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교육의 기회를 얻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국가에 기여할 인재들을 육성하는 데 힘을 쏟았다는 게 학교 측 설명이다. 당시 북일고는 대학 수준에 준하는 최신 시설을 갖춰 주목받기도 했다.

북일학원은 현재 북일고와 북일여고를 포함해 60학급, 재학생 1697명, 교직원 201명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50년간 배출된 2만4000여 명의 졸업생들은 사회 각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원광희 기자

wkh@metroseoul.co.kr



metro

현대차, 싼타페 등 최대 300만원 할인 KCC, 노후주택 환경 개선에 2억 지원

‘현대 이지 스타트 프로그램’ 인기 차종도 할인·연료비 지원



현대 Easy Start 프로그램 배너 이미지.

현대자동차가 유가 상승과 고금리 등 경제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소비자 부담 줄이기에 나선다. 지난 2022년 이후 반도체 부족에 따른 생산 차질로 구매 할인 혜택이 사라진 상황이다.

현대차는 고객들의 차량 구매와 보유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크게 낮춘 ‘현대 이지 스타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지 스타트 프로그램은 일부 차종에만 적용됐던 구매 부담 완화 및 연료비 지원 혜택을 주요 인기 차종으로 확대·강화했다.

현대차는 우선 구매 지원 혜택으로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싼타페와 싼타타는 최대 300만원, 아이오닉6 및 코나 일렉트릭은 최대 200만원, 아이오닉5 최대 150만원, 포터LPDi 최대 100만원의 할인이 제공된다.

또 코나 일렉트릭, 아이오닉5, 아이

오닉6, 넥소를 대상으로 진행되던 차량반납 유예형 할부 프로그램을 쏘나타, 싼타페, 포터LPDi로 확장한다.

차량반납 유예형 할부는 차량의 잔존가치를 미리 보장받아 그 금액만큼 할부금을 유예하고 나머지 금액의 원리금과 유예금에 대한 이자만 납부한다. 만기 때는 차량 반납을 통해 유예금 상환이 가능하다.

싼타페와 쏘나타는 6개월 할부 잔가율을 3~10%p 상향했고, 포터LPDi는 할부 기간 6개월을 신설해 월 20만~30만원대의 월납입금으로 차량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현대차는 차종별로 최대 40만원 상당의 유류비 및 충전비도 지원한다. /양성호 기자 ysw@

올해도 ‘새뜰마을사업’ 참여 9년간 누적 1325가구 개선

KCC가 주거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새뜰마을사업’에 올해도 참여하며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간다.

5일 KCC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까지 9년째 해당 사업에 참여한 가운데 누적 1325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에 힘을 보탤다.

새뜰마을사업은 국토교통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주관하고 한국해비타트를 포함한 8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프로젝트다. 정부와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민간기업이 협력해 도시 내 취약지역과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및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고, 공동체 회복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KCC는 지난해 부산 진구, 광주 광산구, 강원 원주, 전북 전주, 경북 문경 등에서 총 221세대의 주택 개보수를 지원한 데 이어 올해도 약 2억원 규모의 건축자재를 지원해 200호 내의 노후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고효율 창호 중심의 자재 지원을 통해 주택의 단열 성능을 높이고 에너지 절감 효과까지 기대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중기부, 中 20곳에 MRV 보급 지원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보고·검증 체계〉

중소 CBAM 대응 인프라 구축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탄소 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6일부터 이달 27일까지 모집한다.

5일 중기부에 따르면 CBAM 제도는 작년 시험 시행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다. 유럽연합(EU)으로 수출하는 중소기업은 철강, 알루미늄 등 탄소 집약적 제품을 생산할 때 배출되는 탄소량을 측정하고 EU 수입업자에게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에 더해 올해부터는 EU 수입업자가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인증서를 구매하는 의무도 추가됐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EU 수출 중소기업의 대응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난 2024년부터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 구축’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20개사 내외 기업에 MRV 보급을 지원할 계획이다.

‘MRV’는 온실가스 배출량(또는 감축량)을 정확하게 측정(Measurement)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고 보고(Reporting)하며 신뢰성 있게 검증(Verification)하는 체계를 의미한다.

EU로 CBAM 대상 품목을 직·간접 수출하거나 수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탄소 배출량 측정 계속설비 구축 및 배출량 산정값의 신뢰성 확인을 위한 전문가 검증 보고서 작성 등을 최대 4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사업 모집공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ESG 통합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KGC, 포용적 문화조성 공로 장관표창

자폐성 장애 대한 사회적 공감 확산

KGC는 ‘세계 자폐인의 날’(4월 2일)을 맞아 열린 기념행사에서 자폐성 장애에 대한 사회적 공감 확산과 포용적 문화 조성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KGC는 2016년부터 임직원이 참여하는 ‘세계 자폐인의 날’ 활동을 통해 자폐성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과 공감대 형성에 힘써왔다.

특히 2020년부터 ‘오티즘 레이스’를 후원하며 임직원과 가족이 함께



KGC는 지난 2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세계 자폐인의 날’ 행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KGC를 대표하여 한승규 미래전략본부장(오른쪽)이 수상했다. /KGC

참여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왔으며, 누적 참가자는 약 1000여명에 달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인사

◆지식재산처 ◇국장급 전보 △특허심판원 수석심판장 구영민

부음

▲이병숙(향년 95세)씨 별세, 김흥식·김옥희·김성식·김관식씨 모친상, 정용주씨 장모상, 정창구(삼성전자 중동총괄

근무)·정원우(한국경제TV 기자)·정혜윤씨 외조모상 = 4일 오후 8시, 청주 하나장례식장 6호실, 발인 6일 오전 8시, 장지 청주 성요셉공원. 043-270-8422
▲조환구(전 오윤뉴스 발행·편집인, 전 강원일보 기자, 향년 59세)씨 별세, 최은례씨 남편상, 조남현(영화감독)·조남훈씨 부친상 = 4일 오전 3시30분, 강릉의료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6일 오전 7시, 장지 강릉 청송공원. 033-610-1444

What Makes A Truly Comfortable & Trustworthy Sleep



50년을 지나, 이제 당신의 일상이 됩니다.

그랜드침대

편안함의 전통, 그랜드침대의 품격으로 완성됩니다.

www.grandbed.com / Tel. 031-945-2233



유사수신 영업수당, 회생절차시 반환해야



박규익 변호사의
도산법 바로알기

최근 코스피와 코스닥의 변동성이 매우 크다. 이럴 때일수록 일반 투자자들을 상대로 일명 주식·코인 리딩방을 열어 원금보장을 미끼로 돈을 받거나, 기존 투자자들에게 받은 돈으로 돌려막는 ‘폰지 사기’가 횡행한다. 이처럼 금융당국의 인가 없이 고수익이나 원금보장을 약속하며 투자자를 현혹해 자금을 조달하는 불법행위를 법적으로 ‘유사수신행위’라고 한다.

일반인이 이러한 유사수신행위에 빠져들게 되는 데에는 업체의 영업 담당자들이 큰 역할을 한다. 이들은 지인을 동원하거나 허위 정보를 남발하며 투자자와 친분을 맺고, 일정한 신뢰를 형성한 뒤 액의 투자를 유도한다. 유사수신행위의 행위는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설립부터 영업 전반에 걸쳐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는 정상적인 금융업체에 비해 기업 구조가 매우 부실할 수밖에 없다. 결국 이들은 당초 약속한 고수익과 원금보장을 커녕 투자금조차 반환하지 못한 채 파산에 이르게 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유사수신행위만 아니라 그 영업 담당자들 역시 원망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유사수신행위가 회생이나 파산 절차에 들어간 경우, 영업 담당자들이 챙겨간 수당은 회수할 수 없는 것일까? 최근 대법원은 “유사수신행위가 영업 담당자에게 지급한 영업수당을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채무자 재산을 처분해 채권자들에게 최대한 변제한 뒤 청산하는 ‘청산형 회생계획’을 진행 중인 유사수신행위 A가 있었다. A사의 회생절차 관리인 B는 프리랜서로 활동하던 영업 담당자들을 상대로 “A사와 맺은 영업수당 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며 이미 지급된 수당의 반환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영업 담당자들은 “해당 수당은 A사가 불법적인 유사수신행위를 실행하고 추진하기 위해 교부한 이른바 ‘불법원인급여’이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맞섰다.

원칙적으로 불법적인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민법 제746조). 예를 들어 불법 도박 자금으로 돈을 빌려주거나 범죄 실행을 조건으로 돈을 건넨 경

우, 돈을 준 사람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불법 행위에 관여한 사람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법질서 전체의 이념에 반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영업 담당자들의 수당이 회수될 경우, 그 돈이 회생채권자(피해 투자자)들을 위한 변제 재원으로 사용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A사가 영업 담당자들에게 불법 행위를 추진하는 수당을 지급했다. 이들을 반환받아 회생채권자들의 피해를 일부나마 복구하는데 쓰도록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더욱 부합한다는 것이다. 또한, 영업 담당자들이 수당을 그대로 보유하게 방치할 경우, 범죄 수익이 고스란히 남게 되어 추후 유사한 범죄를 저지를 유인이 유지된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결론적으로, 유사수신행위에 관여해 받은 대가는 설령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한 몫이라 하더라도 추후 반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처럼 회생 절차에 돌입하면, 채무자인 회사와 임직원이 한 행위나 제3자에게 지급했던 자금 등은 법원의 관리·감독하에 최대한 채권자들의 피해를 회복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엄격히 처리된다.

/법무법인 바른

멈춰선 안될 것은 공정과 공정

(工程) (公正)



기지수첩
이청하 (유통&라이프부)

4월 5일은 식목일이자 절기로는 청명이다. 24절기 중 청명(淸明)은 하늘이 맑아지고 땅이 풀리는 날이다. 예로부터 농가에서는 한 해 농사를 시작하며 ‘기본’을 다지는 시기다. 하지만 국내 바이오 산업의 들쭉날쭉은 먹구름이 짙게 깔렸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노사 갈등은 심화되고 있다. 노동조합이 임금 인상, 성과급 배분, 인사권 합의 등을 제시하며 오는 5월 전면 파업을 예고하자, 사측은 법원에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청구했다.

양측 법적 대응의 핵심은 생산 공정 멈춤에 대한 설정으로 이어진다. 살아있는 세포를 다루는 공정(工程) 특성상 365일

가동은 필수적이고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의약품 공급은 끊겨선 안 된다는 사측 논리는 분명 타당하다.

다만 배양기를 돌리는 것은 아직 사람이며 사람을 움직이는 동력은 공정(公正)의 연속성이다. 현재 노조가 내놓은 요구안에서 유독 눈에 띄는 대목이 있다. 회사의 중요 권한인 채용, 승진 등 인사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배경은 무엇일까.

신약개발 명가라는 전통을 가진 한미약품에서도 최근 비슷한 긴장감이 있었다. 내부 승진 중심의 ‘한미맨’ 인사 기조가 깨지고, 창사 이래 처음으로 외부 출신 대표가 취임했다. 신입 대표는 첫 공식 행보로 제조 현장과 연구개발 센터를 방문하며 조직과 적극 소통하고 있다. 다만 앞서 전임 대표 역시 기존 임기에 맞춰 회사를 떠나며 토종 제약 기업의 신약개발이 계속되기를 바랐

고 남은 내부 구성원의 안위를 당부했다.

공정(工程)이 중단되면 세포가 죽고 공정(公正)이 흐려지면 사람 마음의 안녕은 깨진다. 이 원리는 제약·바이오 산업뿐 아니라 어느 조직에서나 동일하게 적용된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는 격언은 진부하지만 강력하다. 경영진 권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도 그 결정에 따르는 책임감이 있기 때문이다.

청명의 농부는 가래질을 하고 독을 살핀다. 눈과 발의 흙을 고르게 하고 물이 새지 않도록 기초를 튼튼히 하는 작업이다. 조직도 마찬가지다. 리더와 구성원, 권한과 책임이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하는지 되새겨볼 시점이다. 특히 그 균형이 합리성을 잃고 치우치면 내부에 쌓인 애사심과 충성심이라는 독은 무너지고 아무리 우수한 기술과 전력이 있어도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mlee236@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4월 6일 (음 2월 19일) 표준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노련한 만큼 운이 따르지 않으니 실망하지 마세요. 60년생 매사 서두르지 말고 신중하세요. 72년생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습니다. 84년생 현실에서 과감히 벗어나 보세요.



49년생 작은 일에 만족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61년생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73년생 일을 너무 크게 벌이지 마세요. 85년생 지금은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할 시기입니다.



50년생 성실하면 하늘이 도울 것이니 노력하고 기다려 보세요. 62년생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집니다. 74년생 남을 높인다면 기이 아름답고 좋을 것입니다. 86년생 뜻밖의 제안을 받게 됩니다.



51년생 배움의 기회가 있다면 꼭 잡으세요. 63년생 불리하게 전개되니 상대방과 타협하세요. 75년생 모든 일이 잘 풀려 나가니 크게 성공합니다. 87년생 과음과식을 조심하세요.



52년생 신경쓰지 않아도 버리는 대로 이뤄집니다. 64년생 윗 사람을 공경하세요. 76년생 매사 불안하나 끝내 이뤄집니다. 88년생 어렵게 성사될 일도 아닙니다. 이뤄지고 앞길도 밝습니다.



53년생 노력에 결실이 있겠습니다. 65년생 모든 일에 긴장을 풀지 마세요. 77년생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 같으니 친새배필 만나겠습니다. 89년생 사방팔방에 운이 열렸습니다.



54년생 마음만 가득할 뿐 용기가 없어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66년생 좋은 기회는 여러 번 오지 않습니다. 78년생 억지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90년생 다음 기회로 미루어 보도록 하세요.



55년생 서두르면 눈앞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67년생 뜻밖의 손실이 생겨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79년생 본인의 부주의로 가까운 사람에게 해가 있습니다. 91년생 대체로 원만합니다.



56년생 사람과의 교제에 구실이 있으면 안됩니다. 68년생 명성과 이익이 있겠습니다. 80년생 일이 쉽게 이루어지니 큰 이익이 있겠습니다. 92년생 능력있는 윗사람을 만나 해결할 수 있습니다.



57년생 할 일은 많은데 몸이 하나니 안터잡기 그치 않습니다. 69년생 옛 친구를 멀리하지 마세요. 81년생 순리에 맞게 차근차근 시행하세요. 93년생 이성운이 매우 좋은 날입니다.



58년생 날로 번창하니 재물과 명예가 늘어납니다. 70년생 시간활용을 잘 할 때입니다. 82년생 여행 중 귀중한 물건을 분실할 실물수가 있습니다. 94년생 현 상태에서 만족하고 더욱 노력하세요.



59년생 도처에 재물이 있으니 나가면 얻을 것입니다. 71년생 어려움이 닦쳐도 능히 이겨 나갈 것입니다. 83년생 동쪽 물가로 가지 마세요. 95년생 일에 진척을 살피며 천천히 진행하세요.

김상회의四季

로또 대박



로또는 인생역전의 대명사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복권사업이 인기지만 요즘처럼 로또복권 당첨을 열망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것의 방증이다. 종종 듣지만, 돼지 꿈을 꾸었거나, 꿈에 조상님이 나타나서 점지해 준 번호를 기억하여 복권이 당첨된 예도 있고, 꿈에 큰불이나 물을 보고서 복권을 샀더니 당첨되는 일도 있었다. 즉, 좋은 일이 생기려면 일단 꿈에서 몽중가피나 예시를 받는다. 몇 년 전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로또 1등 당첨자 중 좋은 꿈을 꾸어 당첨되었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답한 사람들의 통계를 내보니 소나 돼지와 같은 동물 꿈이 27%로 가장 많았으며 2위는 조상님 꿈이었다. 그다음은 물, 불 관련 꿈이었다. 기운이 그렇게 흘러가니 꿈으로 선포되는 것이라.

사주팔자 차원에서 로또와 같은 복권에 당첨되는 것은 일단 행운이기도 하지만, 원래 갑자기 생기는 재물은 횡재(橫財)라 하여 조심스럽다. 전통적 의미로서도 횡재는 ‘가로운 재물’이라 하여 걸려서 넘어지는 형국으로 보기도 했고, 복권 당첨과 같은 횡재를 얻은 사람들의 말로가 좋지 못했다는 것 때문이기도 하여 일확천금도 받을 그릇이 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조상의 음덕으로 인해 생긴 큰 재물은 횡재라 보지 않는다. 더 예전에는 복권 당첨은 그야말로 인생역전의 행운이라 말할 수 있지만, 요즘은 세금도 최고 세율에다가 1등 당첨금액도 그리 크지가 않다. 물가가 올라간 탓도 있고 무엇보다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기에 복권 1등이 당첨되어도 강남의 보통 평수 아파트 마련도 어려울 정도의 금액이다. 복권 당첨 후에 흥청망청 쓰다가 가족도 잃고 다시 빈털터리가 되는 횡재의 징크스에서 벗어나야 할 바란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학원
스도쿠365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이드의 월드리듬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QR코드
할인도서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1 7 4 2 9 3
3 9 7
9 4 5 2
6 9
7 6 4 9
2 5 3
6 5 8 7 2 4
1 2 4 8
1 8 4 6 1 9
2 8 5 9
3 9 7 6
2 2 6 7 3 1
6 3 5 8
7 2 6 9 8 1 9 8
8 6 9 2 1 8 2 9
9 1 8 2 9 8 2 6 7
9 7 8 1 6 2 6 9 8
1 2 2 6 8 9 8 7 9
6 8 9 9 8 7 2 1 2
8 9 6 8 1 9 7 8 2
8 9 7 8 2 6 9 2 1
2 8 1 7 5 2 9 8 6

의대 43.6% '미적분·기하' 지정... 일반 이공계는 한곳뿐

종로학원, 대학별 전형계획 분석 수학 선택과목 반영 기준 차이 일각선 이공계 역량 약화 우려

이공계 인재 육성을 강조해온 정부 기조와 달리, 2027학년도 정시에서 전국 174개 4년제 대학 가운데 자연계 학과 전반에서 수학 미적분·기하를 지정한 대학은 서울대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국 39개 의대 중에서는 17개 대학이 미적분·기하를 지정해, 일반 이공계 학과와 의대의 수학 반영 기준이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2일 종로학원이 2027학년도 대학별 전형계획을 기준으로 전국 174개 대학을 분석한 결과, 자연계 학과 다수에서 정시 지원 시 미적분·기하를 지정한 대학은 서울대가 유일했다. 일부 학과에만 지정된 대학은 7개교였고, 166개교는 수학 선택과목 지정이 없었다.

수학 선택과목 지정은 지원자가 미적분·기하 등 이과 수학을 응시하도록 하

<자연계 학과 수학 미적분 기하 지정대학 현황>

/종로학원

대학	지정학과
서울대	전 학과 (식품영양·의류·간호 3개 학과 제외)
가천대(글로벌)	클라우드 공학과
경북대	모바일공학전공
전북대	수학교육과
제주대	수학교육과
충남대	수학과, 수학교육과, 정보통계학과
충북대	수학과, 수학교육과, 정보통계학과
전남대	수학과, 수학교육과, 기계공학과 등 21개 학과

는 기준으로, 이공계 학과의 기초 수학 역량을 반영하는 장치다.

권역별로 보면 서울권 32개 대학 중에서는 서울대만 자연계 학과 전반에서 미적분·기하를 지정했다. 경인권 40개 대학에서는 전반 지정 대학이 없었고 일부 학과 지정 대학은 1개교였다. 지방 102개 대학 가운데에서도 자연계 학과 전반에서 미적분·기하를 지정한 대학은 없었고, 일부 학과 지정 대학은 6개교에

그쳤다.

자연계 학과에서 수학 선택과목을 지정한 대학 현황을 보면 서울대는 식품영양학과·의류학과·간호학과를 제외한 대부분 자연계 학과에서 미적분·기하를 지정했다. 이어 전남대가 자연계 46개 학과 중 수학과·수학교육과·기계공학과 등 21개 학과에서 미적분·기하를 지정했다. 충남대와 충북대는 각각 수학과·수학교육과·정보통계학과 등 3개 학과에

서 이를 반영했다. 가천대는 클라우드공학과 1개 학과, 경북대는 모바일공학전공 1개 학과, 전북대와 제주대는 각각 수학교육과 1개 학과에서만 미적분·기하를 지정했다.

서울권 대학 상황도 비슷했다. 종로학원은 서울권 조사대학 32개 대학 중 서울대를 제외한 연세대·고려대·성균관대·서강대·한양대·중앙대·경희대·이화여대·서울시립대 등 31개 대학 자연계 학과에서는 수학 지정과목이 없어 문과 수학과로 분류되는 확률과 통계를 선택해도 정시 지원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수학과와 수학교육과가 개설된 서울권 20개 대학 중에서도 서울대를 제외한 19개 대학은 확률과 통계로 정시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는 상황이 달랐다. 전국 39개 의대 중 17개교(43.6%)가 미적분·기하를 지정했다. 서울대, 울산대, 단국대, 전북대, 가천대 등이 이에 해당했다. 반면 연세대, 고려대, 가톨릭대 등 22개교는 수학 선택과목 지정이 없었다.

종로학원은 자연계 학과에서 수학 선택과목 지정이 사실상 사라지면서,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확률과 통계 응시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수능 확률과 통계 응시 비율은 ▲2022학년도 51.7% ▲2023학년도 48.2% ▲2024학년도 45.1% ▲2025학년도 45.6% ▲2026학년도 56.1%로 지난해부터 급격히 상승했다.

종로학원은 2028학년도 대입부터 수능 수학에서 문·이과 구분이 33년 만에 폐지되고, 시험 범위도 사실상 문과 범위로 축소된다는 점도 함께 짚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2028학년도부터는 수능 수학에서 이과 범위 자체가 없어지는 만큼 이공계 진학 학생들의 수학 실력이 예전과 매우 다른 상황일 수 있다"며 "이공계 집중 육성 정책과 부합하는지, 각 대학들이 이러한 현상에 대해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서울시, 3개월간 기후동행카드 환급 추진

30일권 이용자 대상 월 3만원 예정 오세훈 시장 "고유가 극복 대책 추진"

서울시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이달부터 6월까지 3개월간 기후동행카드 30일권 이용자를 대상으로 월 3만원을 환급한다고 5일 밝혔다.

기후동행카드는 월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대중교통과 파킹·한강버스 등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전국 최초 대중교통 통합 정기권이다.

이번 환급 적용 대상은 이달부터 6월까지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을 충전해 이용한 서울시민이다. 개별 이용자 충전·만료 내역을 확인 후 6월부터 3만원을 환급할 예정이다.

다만 충전 이후 사용하지 않은 환

<기후동행카드 환급 계획>

/서울시

구분	일반	청년	청소년	두자녀	세자녀	저소득
충전금액	62,000	55,000	55,000	55,000	45,000	45,000
페이백금액	월 3만원	월 3만원	월 3만원	월 3만원	월 3만원	월 3만원
적용금액	32,000	25,000	25,000	25,000	15,000	15,000

불 이용자, 충전금 미사용자, 단기권, 개인 확인이 불가한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 미가입자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급 혜택을 받기 위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는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에 가입하고 카드를 등록해야 한다.

이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낮았던 승용차 이용자, 프리랜서, 학생 등이 기후동행카드를 선택할 것으로 시는 기

대했다. 시는 약 100만명이 환급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측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위기의 시기에 서울시가 갖추고 있는 세계적인 수준의 대중교통 인프라를 기반으로 고강도 대중교통비 절감 대책을 통해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률을 제고해 에너지 절감에 동참하고 고유가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평택시, 탄약고 이전부지 문화공간 조성

고덕지구 3-3단계 사업 속도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개발의 핵심 현안이었던 '알파탄약고' 이전이 지난 3월 19일 최종 완료되면서 고덕지구 3-3단계 사업을 비롯한 국제도시 조성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3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알파탄약고 이전 경과와 향후 부지 활용 및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고덕지구는 2008년부터 단계별 개발이 진행돼 현재 약 6만7천 명이 거주 중이나, 지구 중심부에 위치한 알파탄약고로 인해 3-3단계 사업 추진에 제약이 받았다. 이에 평택시는 2021년부터 주한미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특별합동실무단을 구성해 협의를 이어왔다.

이전 완료에 따라 그동안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제한됐던 도로 등 기반시



정장선 평택시장이 지난 3일 시청에서 알파탄약고 이전 경과와 향후 부지 활용 및 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평택시

설 착공이 즉시 가능해졌다. 시는 국방부와 협의를 통해 군사보호구역 해제 및 공여구역 반환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탄약고 이전 부지는 지역의 역사성을 반영한 문화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며, 시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시민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 활용 방안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평택(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고려대 '공약다나와' 웹서비스

지방선거 후보들의 공약을 인공지능으로 한눈에 비교·분석할 수 있는 웹서비스가 나왔다.

고려대에 따르면 이번 서비스는 강우창 교수팀이 시빅해커 이동근, 한국정당학회, 뉴웨이즈와 함께 개발했다.

2006년 제4회 지방선거부터 2022년 제8회 지방선거까지 최근 5회에 걸친 지방선거 공약을 자동 분류한 웹 기반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현진 기자

도심 대형 전광판 운영시간 자율 단축

서울시 범국가적 에너지 절약 동참

최근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자원 안보 위기로 범국가적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과 협력해 6일부터 5일간 하루 2시간씩 도심 대형 전광판 운영시간 자율 단축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따라서 기존에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운영돼 온 광화문·명동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내 대형 전광판 총 30기는

6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시작 및 종료시각을 1시간씩 단축한다.

시는 에너지 절약이 절실한 시기, 위기 극복 필요성에 공감한 민간 운영주체가 자율적으로 운영시간을 조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시민 체감도 높고 상징성 있는 도심을 시작으로 시민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 분위기를 시내 전역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현진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6:11 | 해질 / 18:59

4월

6일 (月)

음력 : 2월 19일

수도권 날씨

8 ~ 14 °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연천 7/15

동두천 7/15

가평 6/15

파주 7/15

서울 8/14

양평 8/15

용인 8/14

평택 8/15

인천 8/12

수원 8/14

백령도 6/8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트럼프 "이란서 격추된 F-15E 탑승 무기시스템 장교 구출"
 ▲ 러시아 "지난 7시간 동안 우크라이나 무인기 69대 격추" 발표



▲ 레바논 유엔평화유지군, 이군의 감시카메라 파괴에 공식 항의
 ▲ "입사 첫날 퇴사"...퇴직 대행업체 찾는 日 신입사원들

/사진 뉴스스

▲ "지구보다 달이 더 가깝다"...'아르테미스 2호' 비행 절반 돌파
 ▲ "당신 미쳤나" 심판 향해 성차별·폭언 네이마르, 북중미월드컵 불투명



외식업계
나들이·야구직관
동시에 겨냥
니



Life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 '청신호'
복수입찰 반전
L2



“연기는 기술 아닌 전달... 무대 위 진심, 관객에 닿기를”



새벽을 여는 사람들

뮤지컬배우 정다희 씨

“그 52만5600분의 귀한 시간들, 어떻게 재요 인생의 시간(Five hundred twenty-five thousand six hundred minutes How do you measure a year in the life)” 뮤지컬 ‘렌트’가 던지는 이 질문처럼, 배우 정다희에게 무대 위의 시간은 그저 지나가는 순간이 아니다. 수없이 무대에 올랐지만 같은 무대는 한 번도 없었고, 오래 이어온 배역일수록 고민은 더 깊어진다. 이 질문은 단순한 자기 점검이 아니다. 배우 정다희에게 연기는 표현의 기술이 아니라 전달의 방식이고, 무대는 결과물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달하기 위한 과정이다. 그래서 그는 매 공연이 끝날 때마다 같은 질문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게 된다. “나는 오늘 누군가에게 닿았는가.”

◆ 우연에서 시작된 길, 스스로 택한 무대

정다희의 출발점은 뮤지컬이 아니었다. 클래식 피아노를 전공하던 학생이었다. 음악을 좋아했고, 한때는 피아니스트를 꿈꿨던 아이였다. 다만 조금 특별한 게 있었다면, 어린 나이에도 스스로를 냉정하게 바라볼 줄 아는 성향을 지니고 있었다.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 사이의 간극을 일찍부터 인지했고, 이를 외면하지 않았다.

뮤지컬로 진로를 바꾸는 결정은 쉽지 않았지만, 의외로 계기는 단순했다. 강원도에 살던 시절 만난 음악 선생님이 그의 목소리를 먼저 알아보고, 노래를 해보라는 권유를 건넸다. 그 한마디는 또 다른 선택으로 이어졌다. 서울로 올라와 실용음악을 준비하던 시기, 지도해주던 선생님들은 정다희에게 ‘뮤지컬’이라는 장르를 추천했다.

그때 처음 접한 작품이 ‘헤드윅’, ‘렌트’, ‘시카고’였다. 비록 실제 무대가 아닌 DVD로 보게 된 영화였지만, 그 경험은 단순한 감상이 아니었다.

“이런 장르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캐릭터를, 그리고 나를 표현할 수 있구나”라는 전에 없던 충격을 받았죠!”

돌아보면 그의 진로는 치밀하게 계획된 ‘선택’이라기보다, 사람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어진 ‘흐름’에 가까웠다. 누군가의 권유, 누군가의 시선, 그리고 그 가능성을 믿어준 말들이 하나씩 쌓이며 지금의 방향을 만들었다.

입시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낮은 환경, 높은 경쟁률, 그리고 가족의 반대까지 겹쳤다. 하지만 그 시기를 버티게 만든 것도 결국 사람이다.

그는 “증명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자신을 가능하다고 말해준 사람들, 그리고 그 말을 끝까지 믿어보려 했던 스스로에게. 뮤지컬 배우들이 다수 배출된 동국대학교 연극학부에 진학한 그는, 졸업 이후 본격적으로 배우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 ‘렌트’로 이어진 시간, 배우를 만든 무대

정다희를 설명할 때 ‘렌트’를 빼놓기는 어렵다. 이 작품은 그의 배우 인생에서 단순한 대표작을 넘어, 배우로서의 변화를 함께해온 작품이다.

‘렌트’는 1990년대 뉴욕 이스트빌리지를 배경으로, 가난과 질병, 예술과 사랑, 그리고 이별을 살아가는 청춘들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전 세계적으로 오랜 시간 사랑받아 온 대표적인 뮤지컬로, 국내에서



정다희 배우.

/정재용 사진작가



클래식 피아니스트 꿈꾸던 어린시절 음악선생님 권유로 뮤지컬 장르 접해 스스로 증명하고 싶어 배우의 길 선택

뮤지컬 ‘렌트’ 세 시즌 연속 무대 올라 같은 역할 반복할수록 감정 더 깊어져

화려함 뒤, 부상·재활 등 시련의 시간도 가족, 동료배우와 의지하며 무대 지켜

관객과 눈 맞추며 전달의 의미 깨달아 잘하는 연기보다 좋은 연기 보여줄 것

도 수차례 공연되며 두터운 팬층을 확보해왔다. 정다희는 이 작품에서 냉철한 현실주의자이자 변호사인 ‘조앤’ 역을 맡았다. 2020년 첫 참여 이후 2023~2024년, 2025~2026년까지 세 차례 같은 역할로 무대에 올랐다.

같은 역할을 반복하는 경험은 흔치 않다. 그러나 그 반복은 익숙함이 아니라 더 큰 질문으로 이어졌다. 시간이 쌓일수록 연기는 오히려 더 어려워졌다. 넘버와 동선은 익숙해졌지만, 무대 위에서 마주하는 감정은 더 복합적으로 다가왔다. 장면 하나, 대사 한 줄을 이전과 다르게 느끼게 되면서 같은 역할임에도 매번 새로운 고민이 뒤따랐다. 익숙함이 쌓일수록 연기가 쉬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느끼고 더 깊이 고민하게 되는 과정이었다.

특히 ‘렌트’ 2막을 대하는 정다희의 감정은 이전과는 분명 달라졌다. 예전에는 이해하려 애썼던 장면들이, 이제는 더 직접적으로 와닿기 시작했다. 가까웠던 관계가 멀어지는 순간이나 이별을 받아들이는 방식, 시간이 지나며 생기는 거리감 같은 감정들이 이전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느껴진다는 것이다. 그는 “시간이 흐를수록 예전엔 크게 와닿지 않았던 감정들이 지금은 훨씬 크게 다가온다”고 말했다.

세 시즌 연속 ‘조앤’으로 무대에 올랐지만, 매번 느끼는 감정은 달랐다. 일부러 연기를 바꾸려 하기보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표현이 달라졌다. 그래서인지 ‘렌트’를 대하는 마음도 다르다. 다른 작품은 마지막 공연이 다가오면 일정이 끝난다는 안도감도 함께 들지만, 이 작품은 끝이 가까워질수록 아쉬움이 더 커진다.

정다희에게 ‘렌트’는 한 시즌으로 끝나는 작품이 아니다. 배우로서 방향을 잡게 해준 작품이자, 지금의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기준이다. “이 작품은 끝날수록 우울해질 정도예요.” 이 한마디에 ‘렌트’를 향한 그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다.

◆ 버티게 하는 이유, 결국 관객의 눈빛

뮤지컬 배우의 삶은 흔히 화려하게 소비된다. 조명과 박수, 커튼콜의 이미지가 먼저 떠오른다. 그러나 그 뒤에 있는 시간은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다. 정다희는 이 직업을 “보여지는 게 90%인 직업”이라고 말한다.

끊임없이 자신을 관리해야 하고, 언제든 일이 끊길 수 있는 구조 속에서 살아간다. 화려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균열이 존재한다.

실제로 그는 공연 중 낙상 사고로 큰 부상을 입었다. 십자인대와 연골이 파열되는 부상이었고, 긴 재활의 시간을 거쳐야 했다. 제작사의 문제로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했던 상황까지 겹치며, 배우로서의 삶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시기를 견뎌야만 했다. 그럼에도 그는 무대를 떠나지 않았다.

그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건 혼자만의 힘이 아니었다. 책임져야 할 반려견 ‘소망이’, 곁에서 손발이 되어준 남동생, 그리고 함께 무대를 지켜온 동료 배우들이 있었다.

결국 정다희를 다시 무대에 서게 만드는 이유는 ‘관객’이다. 그는 매 공연이 끝난 뒤, 그날의 무대가 누군가에게 어떻게 닿았는지를 돌아본다.

“공연이 끝나고 관객분들의 눈을 보면 오래 남아요. 그분들이 오늘 무엇을 느끼셨는지 생각하게 돼요.” 그에게 연기는 ‘표현’이 아니라 ‘전달’에 가깝다. 누군가에게 감정이 닿는 순간, 그때 비로소 공연의 의미가 완성된다.

◆ 더 깊어진 배우, 변하지 않는 기준

데뷔 초의 정다희는 무대에서는 것 자체가 목표였던 배우였다. 주어진 역할을 끝까지 해내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것, 그 감각 하나로 무대를 버텼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무대는 단순한 목표를 넘어 더 깊은 의미를 갖게 됐다. 이제 그는 잘하는 연기보다 ‘좋은 연기’를 고민한다.

“노래는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관객이 보러 오는 건 결국 ‘사람’이잖아요. 이 인물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걷고, 어떻게 바라볼지를 계속 고민해요.”

그에게 연기는 보여주는 기술이 아니라, 인물을 살아내는 과정이다. 그래서 무대 위보다 무대 밖에서 더 많은 시간을 고민에 쏟는다. 그 질문들이 쌓여야 비로소 무대 위에서 한 사람으로 설 수 있다고 믿는다.

시간이 흐르며 태도도 달라졌다. 예전에는 열정으로 밀어붙였다면, 지금은 인물에 대한 책임감을 먼저 생각한다. “이제는 제가 잘해 보이는 것보다, 이 인물이 관객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기준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다. “좋은 사람이 좋은 연기를 할 수 있다고 믿어요.” 완벽한 기준은 아닐지라도, 자신이 존경하는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태도로 살아가려는 마음.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배운 것들을 무대 위에 담아내는 것.

그는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힘들 때 붙잡아주고 다시 일으켜 세워준 사람들. 그 존재들이 있었기에 무대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 했다.

그래서 정다희에게 무대는 혼자 완성하는 공간이 아니다.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결과에 가깝다.

동시에 그는 더 넓은 가능성도 바라보고 있다. 무대에서 쌓아온 감정과 연기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에게 닿게 할 수 있을지, 조심스럽게 생각해보는 요즘이다. 그에게 확장은 ‘다른 길’이 아니라 ‘이어지는 길’이다. 그럼에도 중심은 분명하다. 정다희에게 무대는 직업이 아니다. 누군가에게 닿기 위한, 가장 그다운 방식이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년 뮤지컬 렌트 ‘조앤’.

/신시킴퍼니

메트로 한줄뉴스



▲탁구 신유빈, 중국 왕만위에 밀려 월드컵 결승 진출 무산 /사진 뉴시스
▲이정후, 4경기 만에 안타 생산 재개...시즌 타율 0.172

▲L AFC 손흥민, 커리어 최초 도움 4개...5-0으로 올랜도전 전만 마쳐
▲국가대표 공격수 조규성, 미트윌란 복귀 후 시즌 첫 도움

▲우승까지 1승 남긴 GS칼텍스 이영택 감독 “초반 고비 넘기면 기회 올 것”
▲악재 만난 키움...정현우, 팔꿈치 불편함으로 1군 제외